

창조원리 (創造原理)

3.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 (神様と被造世界の関係)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몸의 관계이고, 둘째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어떤 관계이며, 인간과 피조세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翻訳】

人間は神様の子女として生を受けたので神様と人間の関係は二種類で説明できます。最初は心と体の関係であり、二番目は父子の関係です。それなら神様と被造世界はどんな関係であり、人間と被造世界はどのような関係を有しているのかを調べてみます。

1) 하나님의 형상과 상징으로 전개된 인간과 만물 (神様の形状と象徴として展開した人間と万物)

본성상, 본형상과 그 속성인 본양성, 본음성의 본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인 창조원리에 의해 개성진리로 전개한 것이 피조만물세계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인간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만물이 있습니다. 형상은 인간에 해당하고, 상징은 만물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예로 들며 영토를 축소하여 나타낸 지도는 그 나라의 형상이고, 국기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인간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을 닮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몸과 같고,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만물은 하나님의 몸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翻訳】

本性相、本形状とその属性である本陽性、本陰性の本体としておられる神様の創造の設計図である創造原理によって個性真理体として展開したのが被造万物世界です。被造万物世界には神様の直接的な形状として現れた人間と神様を象徴する万物があります。形状は人間に該当し、象徴は万物に該当します。

国家を例にあげてみると領土を縮小して現わした地図はその国の形状で、国旗は国の象徴です。神様の中で実体として現れた人間と万物は全部、神様に似ましたが、心は神様の体と同じように、人間は神様の顔と同じだといえることができます。人間は神様の心に似ており、万物は神様の体に似たということです。

사람도 몸을 보고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마음에도 양성과 음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양성과 음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본양성과 본음성의 절대성이 전개된 실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양적인 성질을 띠거나 요소와 음적인 성질을 띠는 요소를 말합니다.

【翻訳】

人も体を見ては、その人が誰なのかを区別することは難しいです。しかし顔を見れば、その人が誰なのか簡単に区別できます。人間も神様に似て心と体でなっており、人間の心にも陽性と陰性の属性があります。

ここで話す人間の心にある陽性と陰性は神様の中にある本陽性と本陰性の絶対性が展開した実体という意味ではなく、一つの陽的な性質を帯びた要素と陰的な性質を帯びた要素をいいます。

적극성을 띠거나 명량하고 유쾌한 것은 양적인 마음의 요소입니다.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짜증내는 것은 음적인 마음의 요소입니다. 몸도 불룩 튀어나온 부분은 양성을 띠는 것이고, 오목 들어간 부분은 음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성과 음성은 생식기를

중심한 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속성에 해당하는 하나의 성질과 특징을 뜻합니다. 만물도 동물, 식물, 광물의 세 가지로 분류되지만, 모두가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상 가운데도 양성과 음성이 있고, 형상 가운데도 양성과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성질과 특징을 말하는 것이지 생식기를 중심한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翻訳】

積極性を帯びたり明るくて愉快なことは陽的な心の要素です。消極的で憂鬱でイライラすることは陰的な心の要素です。体もふっくらと飛び出してきた部分は陽性を帯びたことで、凹に入っただ部分は陰性を帯びたのです。なので人間の心の中にある陽性と陰性は生殖器を中心とした性を表現したものではなく、どのような属性に該当するのかという一つの性質と特徴を意味します。

万物も動物、植物、鉱物の三種類に分類されますが、皆が性相と形状を備えています。神様の中から出てきたのでそうなのです。性相の中にも陽性と陰性があり、形状の中にも陽性と陰性があります。それも一つの性質と特徴をいうことであって生殖器を中心とした絶対性をい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피조세계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적이라면, 피조세계는 외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적이라면, 피조세계는 횡적입니다. 하나님이 무형이라면, 피조세계는 유형적입니다.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라면, 피조세계는 여성격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같습니다. 당신 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사랑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을 동기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翻訳】

神様と被造世界の関係は主体と対象の関係で整理できます。神様が原因ならば、被造世界は結果です。神様が内的ならば、被造世界は外的に現れたものです。神様が縦的ならば、被造世界は横的です。神様が無形ならば、被造世界は有形です。神様が男性格主体ならば、被造世界は女性格対象です。

神様は男性格主体なので被造世界を造らなかった時は結婚しなかったのと同じです。ご自分の中に愛したい心があっても愛を授け受けすることができる対象がいないので、愛の喜び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神様は心情を動機として愛を授け受けする時、喜び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それで対象を創造したのです。

2) 인간과 만물의 관계 (人間と万物の関係)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모두 주관하면서 살라고 축복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에 대한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가진 속성과 요소와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을 때 그 대상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요소, 성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만물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성대를 가지고 있어서 온갖 통물의 소리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개소리밖에 못 내고 닭은 닭소리밖에 못 냅니다.

【翻訳】

人間と万物の関係を見る時も同じことです。神様は人間に万物を全部、主管して生きなさいと祝福しました。万物を主管するには万物に対するすべての属性を有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対象が持つ属性と要素と性質を全部持っている時、その対象を主管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それで人間は万物が持っている属性、要素、性質をみな備えています。例えば人間は万物の声を

まねることができる声帯を有していて、あらゆる動物の声を描写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犬は犬の声しか出せなくて、鶏は鶏の声しか出せません。

지구는 5 대양 6 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5 대양 6 대주가 인간에게는 오장육부입니다. 지구의 4 분의 3 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인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모자라면 탈수상태에 빠져 죽게 됩니다. 혈액 안에도 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 놓은 우주의 축소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갈 자격을 잃게 됩니다.

【翻訳】

地球は5大洋6大陸になっています。5大洋6大陸が人間においては五臓六腑にあたります。地球の4分の3が水になっていますが、人体もそうになっています。それで、水分が足りなければ脱水状態に陥って死ぬことになります。血液の中にも水がたくさん入っています。

人間は神様が作っておいた宇宙の縮小体なので、それを知って、自ら体を管理して守って保護しなければ、神様の体として生きていく資格を失うことになります。

1 년은 12 달과 24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는 좌우로 각각 열두 개의 갈비뼈가 있는데, 양쪽을 합치면 모두 24 개가 됩니다. 그 안에 오장육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소우주또는 소천주로 불립니다. 또 영계에는 열두 대문이 있고, 지상세계에는 열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라도 열두 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어보면 복잡한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체의 구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배터리, 엔진, 냉각기, 변속기, 점화플러그 등 인체의 장기에 해당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 기계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도 자동차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翻訳】

1年は12月と24節期でなっています。人体には左右でそれぞれ12個の肋骨があって、両側を合わせれば全部で24個になります。その中に五臓六腑の器官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人間は小宇宙または小宇宙と呼ばれます。また、霊界には12の門があって、地上世界には12の類型の人がいます。人は誰でも12種類の類型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ません。

自動車のボンネットを開けてみれば複雑な部品が多いです。それを人体の構造と比較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こにバッテリー、エンジン、冷却器、変速機、点火プラグなど人体の臓器に該当する構造が入っています。その機械のうちどれか一つが誤っても自動車はまともに動きません。人間も同じことです。人間は神様の偉大な聖典で作られたので自分の体をよく管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구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를 보면 모발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표에 해당하는 피부가 있고, 지층과 같은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있듯이 혈액이 있고, 암층이 있듯이 골격이 있고, 암층 속에 마그마인 용암이 있듯이 골격 속에 골수가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6 단계의 구조로 형성되었듯이 인간의 구조도 6 단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총합한 축소체로 나타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고,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은 만물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翻訳】

地球には植物があります。同じように私たちの人体を見れば毛髪があります。地球の地表に該当する皮膚があり、地層と同じ筋肉があって、その次に地下水があるように血液があって、岩層があるように骨格があって、岩層中にマグマである溶岩があるように骨格の中に骨髓があります。

地球自体が6段階の構造で形成されたように人間の構造も6段階で形成されています。万物を総合した縮小体で現れた人間なのでそうなのです。人間は神様に似るように創造されたし、人間を手本として万物を作りました。それにより人間は万物世界を主管する主管者にな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4.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및 사위기대 (万有原力と授受作用および四位基台)

모든 존재는 반드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이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관계성을 갖고 존재합니다. 관계성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힘도 관계성에 의해 존재합니다.

【翻訳】

すべての存在は必ず関係性を有しています。それで哲学界で最も永らく悩んできたのが存在と関係に対する問題です。すべての存在は無形であろうと有形であろうと関係性を持って存在します。関係性を整理してお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エネルギーから出てくる力も関係性によって存在します。

1) 만유원력 (万有原力)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스스로 계신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절대적입니다. 그 힘은 모든 피조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유원력은 원리의 본체되시는 하나님의 형성에 속합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놓은 피조만물도 존재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만물은 자기 스스로 힘을 갖지 못하므로 힘을 발생케 하는 원인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만유원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만물은 만유원력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翻訳】

神様はすべての存在の創造主として時間と空間を超越して永遠に自ら存在される絶対者です。神様がそういう存在としておられるための根本的な力も絶対的です。その力はすべての被造万物が存在するためにも必ず必要です。そういう根本になった力を万有原力といいます。出エジプト記 3章 14節に神様はモーゼに私は自らある者だ。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万有原力は原理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の形状に属します。

存在するためには力が必要です。万有原力は神様が存在するための根本になった力です。神様が作っておいた被造万物も存在するには力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ころで被造万物は自分で力を持つことができないので、力を発生させる原因的な力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力がまさに万有原力なのです。それですべての被造万物は万有原力によって存在します。

인간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상적인 부분이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며 신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적인 부분이 만유원력이며 능력입니다. 따라서 만유원력은 낮의 하나님, 즉 창조주인 하나님의 몸에 해당하고, 만유원력의 근본적인 힘인 심정은 밤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인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닮고 하나님의 몸인 원리와 법도와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翻訳】

人間の心と体は神様の性相と形状の実体です。神様の性相的な部分が心情と真の愛と人格であり神性であるならば、神様の形状的な部分が万有原力であり能力です。したがって万有原力は昼の神

様、すなわち創造主である神様の体に該当し、万有原力の根本的な力である心情は夜の神様、すなわち神様の心に該当します。

私たち人間は神様の心である心情と真の愛と人格に似ており、神様の体である原理と法度と秩序のとおり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に生きてこそ神様が訪ねてくることが出来る人間になれるのです。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햇빛도, 공기도, 비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자체가 인간의 비극입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이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을 발생게 하는 원인적인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유원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고,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翻訳】

人は皆、神様によって生きています。日光も、空気も、雨も神様によって現れたのです。神様によって生きる人間なのに神様を否定していること自体が人間の悲劇です。

万有原力は神様が存在するための根本な力であると同時に、すべての被造物が存在するための力を発生するようにする原因的な力です。結論として万有原力がなければ神様は存在することができず、被造物も存在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2) 수수작용 (授受作用)

주고받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수작용은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은 만유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에 쓰는 '수' 자는 줄 수자 입니다. 그리고 뒤에 쓰는 '수' 자는 받을 수자 입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이지 받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작용을 하려면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만유원력입니다. 만유원력이 작용하려면 상대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상대기준이란 말은 두 존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기준이 조성되고 만유원력이 작용하면,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실체화하기 위해서 드러납니다.

【翻訳】

授け受ける作用を授受作用といいます。授受作用はよく与えてよく受ける作用です。授受作用は万有原力によって成り立ちます。前に使われる授の字は授ける授の字です。そして後ろに使う授の字は受ける受の字です。先に受けて後に与えるのではなく、先に与えて後に受けるのです。そこには秩序があります。先に与えなければならぬです。授け受けすることであって受けて与えるのではありません。

授け受ける作用をするにはそのように作る力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授け受けできるようにする力の根源が万有原力です。万有原力が作用するには相対基準が立て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相対基準という言葉は二つの存在が互いに授け受けできるように基台を作ることを行います。相対基準が造成されて万有原力が作用すれば、性相、形状、陽性、陰性が実体化するためにあらわれます。

하나님의 창조도 당신 속에 있는 본성상과 본형상이라는 두 요소가 상대기준을 조성한 만유원력에 의해 주고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상과 형상이 수수작용을 하는 데는 만유원력이 중심이 됩니다.

상대기준이 조성되면 수수작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존재가 셋이 있을 때는 삼대상

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상대상기준이라고 합니다. 존재가 둘일 때는 상대기준이고, 셋일 때는 상대상기준입니다. 존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존재기대를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둘이 있을 때는 간단한데, 셋이 있을 때는 셋이 맞아야 합니다.

【翻訳】

神様の創造も神様の中にある本性相と本形状という二つの要素が相対基準を作った万有原力によって授け受けして成り立ったのです。性相と形状が授受作用をするには万有原力が中心となります。

相対基準が造成されれば授受作用が広がります。ところで授け受けする存在が三つある時は三対象のために存在する基台を立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を三対象基準といいます。存在が二つである時は相対基準で、三つである時は三対象基準です。存在が多くなれば多くなるほど存在基台を立てるのが難しくなります。二つである時は簡単ですが、三つがある時は三つが合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상대기준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지만, 주고받는 힘은 만유원력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두 요소가 상대기준을 조성해서 만유원력에 의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분립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주체와 대상입니다. 하나님 안의 성상이 주체라면, 형상은 대상입니다. 하나님 안의 양성이 주체라면, 음성은 대상입니다.

본체 속에 있는 두 요소가 만유원력에 의해서 분립되어 나온 실체가 주체와 대상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다시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기준을 세워 수수작용을 하면 거기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합성체가 생깁니다.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수수작용을 하지 않는 생존, 번식, 작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활동도 없습니다.

【翻訳】

相対基準の中心は神様です。神様の心情が動機となり目的になりますが、授け受ける力は万有原力です。神様の中にある二つの要素が相対基準を作り、万有原力によって授受作用をすることになれば分立して出てきます。それが主体と対象です。神様の中の性相が主体ならば、形状は対象です。神様の中の陽性が主体ならば、陰性は対象です。

本体の中にある二つの要素が万有原力によって分立して出てきた実体が主体と対象です。主体と対象が再び万有原力によって相対視準を立てて授受作用をすれば、そこに力が生じます。そして合成体が生じます。その力によってすべての存在は、生存して、繁殖して、作用するのです。授受作用をしない生存、繁殖、作用はありません。そのような活動もありえません。

수수작용의 힘은 만유원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유원력이고, 하나는 만유원력에 의해서 나오는 수수작용의 힘입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을 하면서 발전과 번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내적과 외적인 관계입니다.

【翻訳】

授受作用の力は万有原力から出ます。それで力は二種類です。一つは万有原力で、一つは万有原力によって出てくる授受作用の力です。互いに一つになるために、よく与えてよく受ける作用をしながら発展と繁殖が起きます。したがって万有原力と授受作用の力の関係は原因と結果、主体と対象、内的と外的である関係です。

(1) 모든 존재는 상대적 존재(상응적 존재)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수수작용에 의해서 번식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도, 번식도, 작용도,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작용이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상응적또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이 세계에 상극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이며, 수수작

용을 하는 이유는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고받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翻訳】

(1)すべての存在は相対的存在(相応的存在)

すべての存在は神様の中で授受作用によって繁殖して出てきました。したがって存在することは全部、授受作用をせずには生存も、繁殖も、作用も、活動もできません。それで授受作用が重要です。すべての存在は相応的または、相対的に存在しており、この世界に相克的な要素はありません。すべての存在が相対的になっている理由は授受作用をするためにであり、授受作用をする理由は発展するためです。授け受けしなければ絶対に発展できません。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극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고, 우가 있으면 좌도 있고, 전이 있으면 후도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전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즉 설명해 놓고, 악이 있으니까 선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란 개념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극적인 개념입니다. 상극이란, 한 점에서 출발하더라도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翻訳】

ある人は全てのものがみな相対的なことだけでなく、相克もあると主張します。上があれば下もあり、右があれば左もあり、前があれば後もあって、男性がいれば女性もいて、父母がいれば子供がいて、全部、相対的な概念だとずらりと説明しておいて、悪があるから善もあると指摘します。悪があるので善という概念を使うことができると見るのです。ところでその話は間違いです。善と悪は相対的な概念ではなくて相克的な概念です。相克というのは、一点から出発しても動機と目的と方向が違うものをいいます。

상대란 말은 한 점에서 출발하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는 문화가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사랑을 중심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하나의 목적과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해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극적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부딪치고 파괴됩니다. 한 점에서 출발했지만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翻訳】

相対という言葉は一点から出発するものの動機と目的と方向が同じようなものを意味します。日本の女性と韓国の男性は文化が違い国籍も違いますが、愛を中心として家庭を作るという一つの目的と理想を持ったので結婚して一つ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善と悪は相対的なことでなく相克的なことで互いに会えばぶつかって破壊されます。一点から出発したが動機が違い、目的が違い、方向性が違うので時間が経つほど互いに分かれるのです。

모든 존재는 상대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요소도 상대적 존재입니다. 상극적인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상극적인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적 존재란 서로 응하는, 상응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상극적 존재는 수수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면 싸움만 벌어집니다.

【翻訳】

すべての存在は相対的存在といいました。神様の中にあるすべての要素も相対的存在です。相克的な概念は一つありません。神様の中には相克的な要素そのものがありません。相対的存在というのは互いに応じる、相応的存在であるという話です。すべての被造物は授受作用をするために相対的に存在します。相克的な存在は授受作用が起きません。会えば戦いだけ広がります。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랑과 미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냉수한 그릇을 상대방에게 준다면, 보이는 것은 냉수지만 거기에는 사랑과 미가 들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는 주는 사랑과 받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건을 선물했다면 보이는 것은 물건이지만, 그 속에는 주는 자의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가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수수작용을 통해 사랑과 미를 주고받습니다. 주체는 대상에게 사랑을 주고, 대상은 그 주체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주체에게 정적인 힘인 미를 돌립니다. 사랑과 미를 주고받으면 기쁨이 나옵니다. 사랑 속에도 미가 있고, 미 속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쁩니다. 주체와 대상이 이처럼 수수작용을 통해 사랑과 미를 주고받으면 기쁨이 오고 그 결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기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翻訳】

私たちは生活の中で愛と美を授け受けします。例えば冷水一杯を相手に与えれば、見えるのは冷水ですがそこには愛と美が入っています。冷水一杯にはあたえる愛と受ける美しい心があります。物をプレゼントしたとすれば見えるのは物ですが、その中には与える者の心と受ける者の心があります。愛と美が入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すべての存在は授受作用を通じて愛と美を授け受けします。主体は対象に愛を与えて、対象はその主体から来る愛を受けて主体に静寂な力である美をかせします。愛と美を授け受けすれば喜びが出てきます。愛の中にも美があり、美の中にも愛があるので与える者も嬉しく、受ける者も嬉しいのです。主体と対象がこのように授受作用を通じて愛と美を授け受けすれば喜びがきて、その結果幸せになるのです。神様の創造目的が喜びのためのものなので、すべての存在は相対的に存在して授受作用をするために存在します。

인간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주체고 자녀는 대상입니다. 부모도 아버지가 주체이고 어머니는 대상입니다. 형님이 주체이고 동생은 대상입니다. 남편이 주체면 아내는 대상이고, 스승이 주체면 제자는 대상입니다. 상관이 주체면 부하는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 아래 있을 때는 부하로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하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상관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이상이 전채 앞에 플러스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서서 드러내면 안 됩니다. 대상은 반드시 주체를 동기로 삼아 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이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翻訳】

人間は主体と対象の関係を有しています。父母は主体で子女は対象です。父母もお父さんが主体でお母さんは対象です。お兄さんが主体で弟は対象です。夫が主体ならば妻は対象で、師匠が主体ならば弟子は対象です。上官が主体ならば部下は対象になります。自身がいくら賢くても上官の下にある時は部下として対象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部下がいくら賢くても上官と一つ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らの以上の存在の前にプラス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分がするように立ち上がって表わしてはいけません。対象は必ず主体を動機として現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対象が動機になってはいけません。

그 다음에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국가는 가정의 이상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가정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가정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장관들은 부모를 모시고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의 형님들과 같습니다. 모든 국가의 일은 가정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딸이 굶고 있다든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 한다든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翻訳】

その次に雇い主がいて雇用人がいます。また、政府があつて国民がいます。国家は家庭の理想

が拡大適用されます。それで大統領は家庭のお父さんと同じです。大統領の夫人は家庭のお母さんと同じです。

長官たちは父母に侍って家庭の暮らしの責任を負う家庭のお兄さんたちと同じです。すべての国家のことは家庭の日課のようなものです。したがって国民が飢餓に苦しんだり勉強をできなかったり病気で苦勞するのは、自らの息子娘が飢えているとか、勉強をしたいができないとか、病気にかかって苦痛にあうのと同じ立場だということです。

국가의 주권자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국민을 돌봐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에게 심정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지도자라면 국민이 그 지도자를 쫓아내거나 그가 하는 말을 싫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자식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을 보다 더 발전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있는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이 주체라면 국민은 자녀와 같은 자리, 대상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翻訳】

国家の主権者はそのような心情を持って国民を世話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家庭の父母が子供たちを考えるように国の主権者は国民に対して心情的な指導者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心を持って実践する指導者ならば国民がその指導者を追い出したり、彼が語る言葉を嫌いだといわないでしょう。

父母は家庭の子供のために存在するので、家庭をよりさらに発展させようとするビジョンをも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同じように大統領は国民のために存在する指導者です。大統領が主体ならば国民は子供のような位置、対象の位置に立つのです。

그 다음에 동물도 수컷과 암컷, 식물도 수술과 암술, 광물도 양과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놓은 존재세계는 소립자부터 최고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극적인 존재가 없고 전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체 없는 대상도 없고, 대상 없는 주체도 없습니다.

천체에도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아홉 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그 궤도와 질서는 영원합니다. 만일 수십 년이 지나서 우주의 질서와 궤도가 변경된다면 지구는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존재성에 대변형이 옵니다. 수억 년이 지났어도 태양계의 행성들은 변함없이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翻訳】

その次に動物も雄と雌、植物も雄しべと雌しべ、鉱物も陽と陰になっています。神様が作っておいた存在世界は素粒子から最高の人間に至るまですべて主体と対象の関係を有しています。相克的な存在がなく、全部相対的な存在です。したがって主体のない対象もなく、対象のない主体もありません。

天体にも主体と対象があります。太陽を中心として9つの惑星が回っていますが、その軌道と秩序は永遠です。万一、数十年が過ぎて宇宙の秩序と軌道が変更されるならば地球には大変化が起きます。存在性に大変形がおきます。数億年が過ぎても太陽系の惑星は変わることなく自らの軌道を回っています。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고, 자전을 하면 하루 24시간이 됩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해서 돌고 있습니다. 달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바닷물, 조수가 하루에 두 번씩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거대한 바닷물이 하루에 두 번씩 꼬박 꼬박 만조가 되어다가 썰물이 됩니다. 여자들은 달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합니다.

위의 예처럼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어 주고받습니다. 그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우주도 수수작용을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존재합니다.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翻訳】

地球は自転もして公転もしています。地球が太陽をひと回り回れば1年になり、自転をすれば一日が24時間になります。月は地球を中心として回っています。月の自転と公転にしたがって海水、潮水が一日に二回ずつ入ってきて出て行ったりします。巨大な海水が一日に二回ずつきちんと満潮になっていって引き潮になります。女性たちは月を代表する位置にあるので一月に一度ずつ月経があります。

上の例のように全てのものが相対的になって授け受けします。その作用を授受作用といいます。宇宙も授受作用をしながら秩序を維持して存在しています。動物と植物も同じです。

꽃은 자기 위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맺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꽃가루받이를 해야 합니다.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꽃은 향기를 퍼뜨립니다. 꽃이 향기를 풍기면 벌과 나비는 향기를 따라 깊은 산석 바위틈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를 찾아갑니다. 꽃은 꿀을 주고, 나비는 꿀을 빨고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며 꽃가루받이를 해줍니다. 그것이 수수작용입니다. 인간도 동맥과 정맥이 있어서 동맥을 통해 기능성 혈액을 조직으로 공급하고, 조직에서는 정맥을 통해 기능을 마친 혈액을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피가 맑고 깨끗하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수수작용이 잘 안 되면 피가 탁하고 병이 나는 것입니다. 식물도 물관과 체관이 있습니다.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서로 영양분과 수분을 주고받습니다.

【翻訳】

花は自分の位置を離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しかし種を結んで実するためには花粉を受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植物は自ら動くことができないので花は香りをまき散らします。花が香りを漂えれば、ハチと蝶は香りについていき、深い山石岩の間に咲いている花一輪を訪ねて行きます。花は蜜を与えて、蝶は蜜を吸って、この花あの花を飛び回って花粉の受粉をします。それが授受作用です。

人間も動脈と静脈があって動脈を通じて機能性血液を組織に供給して、組織では静脈を通じて機能を終えた血液を心臓に送ります。その過程で血液が浄化されるのです。血がきれいできれいなれば健康な人になります。授受作用がうまくできなければ血が汚れていて病気になるのです。植物も水管と体管があります。水管と体管を通じて互いに栄養分と水分を授け受けします。

성서를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그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 장 1-2 절)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7 장 12 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 장 8 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들이 모두 수수작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翻訳】

聖書を見れば'批判を受けたくないなら批判するな。お前たちが批判するその批判を受ける受けるであろう。お前たいが推し量るその推し量りでお前たちが推し量ることを受けのだ。'(マタイ福音書 7 章 1-2 節)と語られています。私が推し量るときそれが戻ってくるとい言葉です。またマタイ福音書 7 章 12 節に'したがって何事も他人から接待を受けようと思うならば、お前たちも人を接待しなさい。これが律法である。先知者たちよ。'と語られました。

与えもしないで受けようとする人は永遠に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そしてルカ福音 12 章 8 節

にはイエス様が'私がまた、お前たちに話すが、誰でも人の前で私を認めれば、人の子も神様の使者の前で彼を認めることです。'と語れました。この一節が皆、授受作用に対する御言です。

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도 수수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책에 글씨를 쓰고 있다면 볼펜과 나의 두뇌가 수수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고, 번식하고, 활동하고, 자기 의사도 표출합니다. 수수작용은 바꾸어주는 작용이 아니라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은 이와 같이 존재의 발전 법칙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계급투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데, 계급투쟁은 발전 법칙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싸우면 없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투쟁에는 발전이 있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심정을 바탕으로 한 진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을 하기 위한 이론이지, 인류가 그토록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翻訳】

また、私たちがどのような事物を見て認識するのかということも授受作用で成り立っているのです。ノートに文字を書いているならばボールペンと私の頭脳が授受作用をするのです。すべての存在は授受作用によって存在し、繁殖し、活動し、自分の意志も表出します。授受作用は変える作用でなくよく与えてよく受ける作用です。

授受作用はこのように存在の発展法則です。共産主義理論は階級闘争によって発展するといいますが、階級闘争は発展法則ではありません。互いに会って戦えばなくなってこ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闘争には発展が存在することはありえません。そのために共産主義理論は誤った理論です。心情を土台にした真理ではありません。共産主義は革命をするための理論であって、人類がそのように永遠の真理を追求して実現するための理論ではありません。

(2) 수수작용으로 본 양심작용

양심의 힘은 수수작용에 의해서 생깁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사람을 선으로 인도합니다. 본연의 양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주고받는 주체는 선의 본체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고 했으며,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입니다.

【翻訳】

(2) 授受作用で見た良心作用

良心の力は授受作用によって生じます。良心はすべての人に作用していて人を善に導きます。本来の良心の主体は神様です。それは神様が善の本体であるためです。良心は善を指向するので、その良心が授け受けする主体は善の本体である神様なのです。

神様はまさに真理です。それでヨハネ福音 1章 1節から 3節に'御言がまさに神様であり、万物が御言によって作ったことになった。'とあるし、'神様はまさに御言と共におられ、御言によってすべての万物が生成さ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それで神様は真理と一つになっています。御言自体がまさに神様なのです。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진리와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주고받을 때 양심의 힘은 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양심이 진리와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본심은 성장함

니다. 본심은 양심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 되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본심이 완성되고,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본심 속으로 들어가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심을 주체라고 한다면 양심은 대상입니다. 본심이 성상이라면 양심은 형상입니다.

【翻訳】

私たちは神様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神様がくださった真理を通じて、原理を通じて神様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聖書ヨハネ福音 8章 32節に'真理を分かることが、真理がお前たちを自由にするだろう。'と記されています。

人間の良心は真理と授け受けします。神様と直接授け受け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真理と授け受けする時、良心の力は善に向かうことになります。良心が真理と授け受けして私たちの本心は成長します。本心は良心を通じて真理と一つになり、成長して成熟してゆくのです。人間が完成すれば本心が完成されて、その時、神様が人間の本心の中に入って存在するようになります。それで本心を主体だとするならば良心は対象です。本心が性相ならば良心は形状です。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본연의 자리에서 진리와 수수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양심은 진리인 줄 알고 대하다 보면 양심이 지향하는 선도 때로는 방향이 뒤흔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는 양심대로 살고 있으니 선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온전히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진리의 근본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인간의 양심작용과 타락한 인간의 양심작용은 다릅니다. 원리본체 안에 들어가면 진리의 본체를 알게 됩니다.

【翻訳】

しかし墮落した人間は本来の位置で真理と授受作用を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真理は神様と一体になっていますが、墮落した人間は神様をなくしたので偽りを真理だと勘違いすることもあります。

墮落した人間が真理だと思い違いすることを良心は真理と知って対してみるならば、良心が指向する善に導かれる時には方向が曲げ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を知らずに'私は良心のとおり生きているので善良な人だ。'と考えても、それでは全き善良な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人間自らが真理の根本をなくしたまま生きているためです。本来の人間の良心作用と墮落した人間の良心作用は違います。原理本体の中に入れば真理の本体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3) 정분합작용에 의한 삼대상목적 및 사위기대 (正分合作用の爲の三対象目的および四位基台)

원리본체 속에 중화적 통일체로 존재하는 본양성과 본음성이 만유원력에 의해 수수작용을 하면, 양성과 음성으로 분립되어 남자와 여자라는 상대적 실체로 나오는데, 그 상대적 실체가 다시 수수작용을 하면 하나의 새로운 실체로 아들 또는 딸이 나옵니다. 다시 합성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전개, 즉 창조의 과정과 피조세계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세계의 발전은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을 비롯하여 정분합작용과 삼대상목적, 그리고 사위기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翻訳】

原理本体の中に中和的統一体として存在する本陽性と本陰性が万有原力によって授受作用をすれば、陽性と陰性に分立して男性と女性という相対的実体に出てきますが、その相対的実体が再び授受作用をすれば、一つの新しい実体である息子または、娘が出てきます。再び合性体になるのです。これが神様の自身の展開、すなわち創造の過程と被造世界の発展段階を見せる一つの例です。

神様の創造と被造世界の発展は万有原力と授受作用をはじめとして正分合作用と三対象目的、そして四位基台を通じて成り立ちます。

(1) 정분합작용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리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당신 자체 속에서 상대기준을 조성해 수수작용을 하면 양성과 음성의 분립이 일어납니다. 양성을 지닌 남자와 음성을 지닌 여자로 분립되는 것입니다.

분립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기준을 조성해 수수작용을 하듯이 그들도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기준은 조성해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합성체인 자녀가 태어납니다.

【翻訳】

(1) 正分合作用

神様を正として、それから分立して再び合成一体化する作用を正分合作用といいます。

神様の二性性相が万有原力によって、神様自身の中で相対基準を作り、授受作用をすれば陽性と陰性の分立が起きます。陽性を持った男性と陰性を持った女性に分立するのです。

分立した男性と女性は神様の要素を備えているので、神様が万有原力によって相対基準を作り授受作用をするように、彼ら도 만有原力によって相対基準は作り授受作用을 합니다.すると再び合成体である子女が生まれます。

하나님을 중심으로 분립된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합성체인 자녀, 이렇게 발전된 3 단계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3 단계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을 정분합이라고 하고, 그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이 원래 세운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타락한 세계에는 이 정분합과 정반대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타락으로 인해 생긴 이론으로, 사탄이 세운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세계에서 발전법칙으로 사용하는 정반합이라는 이론입니다. 정반합은 공산주의 이론의 발전법칙 가운데 가장 핵심 되는 내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주의 근본을 물질로 봤습니다. 영계도 부정해 버리고 신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반합은 변증법의 논리 전개에서 나온 말입니다.

【翻訳】

神様を中心に分立した男性と女性、そして合成体である子女、このように発展した3段階の秩序が立てられるのです。このようにすべての存在が3段階によって発展するのを正分合と言って、その作用を正分合作用といいます。この原理が神様が本来立てられた創造の設計図なのです。墮落した世界にはこの正分合と正反対になる理論が一つあります。それは人間の墮落によりできた理論で、サタンが立てた理論といえます。まさに共産主義世界で発展法則として使う正反合という理論です。正反合は共産主義理論の発展法則の中で最も核心になる内容です。共産主義者などは宇宙の根本を物質と見ました。霊界も否定してしまい神様もいないと主張します。正反合は弁証法の論理展開から出たという話です。

변증법의 기본 전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속적인 반복, 끊임없는 모순의 생성과 지양을 통해 변화, 발전한다는 논리입니다. 헤겔이 주장했던 정반합에 의해서 변화,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반합이론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론을 취하게 되면 혁명적인 인간이 됩니다.

물론 정반합이 나오기까지 그 배후에 산업혁명 초기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급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정반합이라는 이론을 혁명을 위한 이론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계시듯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 이성성상으로 나타납니다.

【翻訳】

弁証法の基本前提はこの世の全てのものは持続的な反復、絶え間ない矛盾の生成と止揚を通じて変化、発展するという論理です。ヘーゲルが主張した正反合によって変化、発展すると見ました。しかし正反合理論は真理を追求するための目的ではなく革命を起こすための目的から出たので、その理論を取ることになれば革命的な人間になります。

もちろん正反合が出てくるまで、その背後に産業革命初期の色々な副作用がありました。そういう副作用を急進的に解決しようとするので、正反合という理論を革命のための理論として出発させたのです。創造主神様が二性性相としておられるように、すべての存在は神様に似て出てきたので全部、二性性相として現れます。

공산주의는 모든 사물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물 속에는 두 요소가 어느 기간 동안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자체 속에서 주 요소가 대리, 투쟁해서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로운 합이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은 달걀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달걀을 보면 달걀껍질이 있고 껍질 안에 노른자와 흰자가 있습니다. 노른자에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생명의 요소인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은 조그만 한 점과 같습니다. 그것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생명의 요소입니다.

【翻訳】

共產主義はあらゆる事物の中に二種類の要素があると主張します。あらゆる事物の中には二つの要素が、ある期間の間、調和と統一を成し遂げていて、一定時期が過ぎればそれ自体の中で主要素が代理、闘争して正でもなくて反でもない新しい合が出てくると見たのです。

彼らは卵を例にあげて説明します。卵を見れば卵皮があって皮の中に卵の黄身と白身があります。卵の黄身にはひよこになることができる生命の要素である胚子があります。胚子は小さな点と同じです。それがひよこになることができる生命の要素です。

그래서 씨눈이 노른자와 흰자를 전부 영양분으로 섭취해서 병아리가 되면 껍질과 대립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면 달걀껍질도 아니고 씨눈도 아닌 새로운 생명체인 병아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다고 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 자체를 혁명하기 위한 동기로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달걀껍질과 달걀의 씨눈은 싸우기 위한 두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목적성이라고 합니다. 달걀껍질은 씨눈이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翻訳】

それで胚子が卵の黄身と白身を全部、栄養分として搾取してひよこになれば、皮と対立闘争するという事です。皮を破って出れば卵皮でもなくて胚子でもない新しい生命体であるひよこになると主張します。共產主義理論は革命を経ずには新しいユートピアがこないと追い立てるのです。したがって理論自体を革命するための動機としてたてました。

しかし卵皮と卵の胚子は戦うための二つの要素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互いに同じ目的を有しています。それを合目的性といいます。卵皮は胚子がひよこになることがきるように保護する責任があり、目的があります。

껍질 속에 있는 씨눈은 껍질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될 때까지 껍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껍질은 씨눈이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고, 씨눈은 병아리가 될 때까지 껍질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은 상호 협력하는 합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21 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만일 그 순간에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생명체가 죽기 때문에 달걀 끝에 얇은 공기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체가 대립, 투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 나오기까지 필요한 모든 준비를 그 안에다해둔 것입니다. 그것이 달걀이 병아리로 발전되어 나오는 과정

입니다.

【翻訳】

皮の中にある胚子は皮に抑圧されているのではなく、ひよこになる時まで皮の保護を受けているのです。すなわち皮は胚子がひよこ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くて、胚子はひよこになる時まで皮の保護を絶対的に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二つは相互協力する合目的性を帯びています。21日が過ぎればひよこが皮を破って出てきます。

万一、その瞬間に皮を破って出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生命体が死ぬので、卵の端を考えるということで空気膜があります。神様の創造は生命体が対立、闘争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く、生命体として出てくるまでに必要なすべての準備をその中においておいたのです。それが卵がひよこに発展して出る過程です。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병아리의 부화 과정을 자본가와 노동자에 대입하려고 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자본가를 달걀껍질에 비유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은 숫자는 많고 생명체를 가졌지만 힘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조화와 통일을 이루면서 연합하고 연대하고 단합해 자본가와 대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는 숫자가 적는데 노동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자본가의 배후에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본가를 타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 농민들이 아무리 감옥에 가고 죽어가더라도 그들이 마음속에서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혁명하다가 죽어가면서도 목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이론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이론입니다.

【翻訳】

ところで共産主義者たちはひよこの孵化過程を資本家と労働者に代入しようとしてしました。数字は少ないけれど資本家を卵皮に比喻しました。労働者や農民は数字は多くて生命体を持ちますが力がないと見ました。彼らは自ら一定期間の間、調和と統一を成し遂げて連合して連帯してまとまって資本家と対決できる力を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資本家は数字が少なかったのですが労働者が勝つことができないのは資本家の背後に国家があるためだという主張です。それで国家の保護を受けている資本家を打倒できる時までは労働者、農民がいくら監獄に行っても死んでいっても彼らが胸の中で火が消えないようにする強力な動機が必要でした。革命をして死んでいきながらも目的のために努力するようにする理論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見たのです。それがまさに共産主義理論です。

그 철학이 유물론이고, 그 자체의 발전단계가 변증법이며, 그것을 역사에 대입한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자본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출현한 당시에는 그 이론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5, 60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강력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는 공산주의와 같은 체계적인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인이나 젊은 청년들이 한때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했습니다.

【翻訳】

その哲学が唯物論であり、その自らの発展段階が弁証法であり、それを歴史に代入したのが唯物史観です。そして経済的な論理で見れば資本論です。

共産主義理論が出現した当時は、その理論が世界を制覇するよう見えしました。今から5、60年前だけでも共産主義が民主主義より強力でした。民主主義という制度の中には共産主義のような体系的な理論がないのです。それで知性人でも若い青年たちが一時、共産主義理論に心酔しました。

공산주의 이론이 그동안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실현을 방해한 잘못된 이론이라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원리본체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독일의 철학자)과 협력하지만 나중에 하나님도 부정하고 종교도 부정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 초기에는 여덟 살 먹은 어린아이까지도 14 시간 정도 중노동을 해야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본가들이 그렇게 노동자들을 혹사시켰습니다.

【翻訳】

共産主義理論がその間、世の中を難しくさせて、神様の御旨の実現を邪魔した誤った理論であるというものを分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意味で'原理本体論'でこの問題を扱うことになったのです。

マルクス(Karl Heinrich Marx, 1818-1883. ドイツの哲学者、経済学者)はヘーゲル(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ドイツの哲学者)と協力しますが、後には神様も否定し宗教も否定しました。当時産業革命初期には8歳になったばかりの子供までも14時間程度重労働をしてこそ、やっと一日を持ちこた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資本家がこのように労働者を酷使させたのです。

그것을 보고 마르크스는 분개했습니다. 자본가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주어야 하는 사람이 당시 관념론 철학자들이고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문제를 해결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자본가와 결탁했습니다.

당시의 종교관은 예정론이 중심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죽게 되어 있고, 자본가들은 자본가로서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翻訳】

それを見てマルクスは憤慨しました。資本家を動かして彼らの誤りを悟り、新しい価値観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人というのが当時の観念論哲学者であり宗教の指導者でした。ところが彼らは現実問題を解決してあげようとはせずに、それどころかかえって資本家と結託したのです。

当時の宗教観は予定論が中心でした。労働者は生まれる時から労働者として仕事をして死ぬことになっており、資本家は資本家として予定された人々なので、彼らをむやみにできないと考えられました。それで当時、宗教家らと知識人たちは労働者の苦痛を解決してあげようという思いを持ってなかったです。

마르크스는 결국 종교를 부정하고 신을 부정해 버리고 영계까지 부정해 버렸습니다.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가 신을 부정하게 된 이유는 그런 사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변증법은 대립, 투쟁을 내세우는데 대립, 투쟁은 증오와 미움에 의해서 나옵니다. 증오와 미움이 있지 않고서는 대립, 투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이론입니다.

【翻訳】

マルクスは結局、宗教を否定し、神を否定してしまい、霊界まで否定してしまいました。ユダヤ教の家に生まれて神様を信仰した彼が神を否定することになった理由はそのような社会に属していたためです。マルクスは最も貧困とかわいそうな人達の側に立って彼らを救援しようとしてしました。

弁証法は対立、闘争を前面に出しますが、対立、闘争は憎しみと嫌悪によって出てきます。憎しみと嫌悪がなければ対立、闘争は存在ことはできません。共産主義理論は人間が墮落してできた理論です。

공산주의 사상을 변증법적 유물론또는 유물변증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세운 것이 '통일원리'의 정분합이론입니다.

정분합이론은 주고받는 수수작용의 수수법으로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공산주의는 마음과 증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중심이지만, '통일원리'는 사랑과 주고받는 수수법적 유일론이 중심입니다.

【翻訳】

共産主義思想を弁証法的唯物論または、唯物弁証法といいます。その理論に対して批判して代案をたてたのが'統一原理'の正分合理論です。

正分合理論は授け受けする授受作用の授受法として、弁証法的唯物論の唯一の対案です。共産主義は心と憎しみの弁証法的唯物論が中心ですが、'統一原理'は愛と授け受けする授受法的唯一論が中心です。

우주의 본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에는 두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싸우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체로 계십니다. 모든 존재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발전단계는 정분합의 3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분합에서는 모두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분합작용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상과 신성으로 계시고, 당신 속에 있는 모든 요소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성을 맺기 위한 것이 수수작용이고, 수수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작용이 정분합작용입니다. 수수작용을 하는 것은 정분합에 의해서 결국 삼대상 목적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삼대상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곧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翻訳】

宇宙の本体はただ神様1人です。神様には二つの要素がありますが、それは戦うための要素でなく、より大きな目的のために存在する要素です。それで神様は統一体としておられます。すべての存在は授受作用により、発展段階は正分合の3段階で成り立ちます。正分合では全部、合目的性を有しています。それで正分合作用という話が非常に重要なのです。

神様は神相と神性をもって存在されており、神様の中にあるすべての要素が別々に存在するのではなく、互いに関係性を有しています。その関係性を結ぶためのものが授受作用であり、授受作用によって現れた作用が正分合作用なのです。授受作用をするのは正分合によって結局、三対象目的を完成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三対象目的を完成することがまさに四位基台を成し遂げることで

(2)삼대상목적

하나님, 남자, 여자, 자녀 네존재가 각각 주체 위치에 설 때,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위치에 섭니다. 네 존재 가운데 한 존재가 주체가 되면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대상이라고 합니다.

두 존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기준을 조성한다고 말합니다. 상대기준은 둘이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둘이 있더라도 서로 상대기준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이 관계성을 맺는 것과 같이 세 존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계성을 맺는 것이 삼대상기준입니다.

【翻訳】

(2)三対象目的

神様、男性、女性、子女の4つの存在がそれぞれ主体の位置に立つ時、残りの三つの存在は対象の位置に立ちます。4つの存在の中で、ある存在が主体になれば残りの三つの存在は対象になるのです。それを三対象といいます。

二つの存在が関係を結ぶ時、相対基準を作ると言います。相対基準は二つがよく与えてよく受け取れるように関係を結ぶということです。二つであっても互いに相対基準を作らなくてははいけませ

ん。二つの関係性を結ぶように三つの存在が互いに授け受けできるように関係性を結ぶことが三対象基準です。

삼대상기준을 세우고 네 존재가 수수작용을 하면 삼대상목적이 완성됩니다. 가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주체)와 여자(대상)가 있고 그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나머지는 제 1 대상(남자), 제 2 대상(여자), 제 3 대상(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주체가 되면 제 1 대상이 하나님이고, 제 2 대상이 여자, 제 3 대상이 자녀가 됩니다. 여자가 주체가 된다면 제 1 대상이 하나님, 제 2 대상이 남자, 제 3 대상이 자녀가 됩니다. 자녀(합성체)가 주체가 된다면 제 1 대상이 하나님이고, 제 2 대상이 아버지, 제 3 대상이 어머니가 됩니다. 네 존재가 각각 주체의 위치에 설 때에 나머지 세 존재는 삼대상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翻訳】

三対象基準をたてて4つの存在が授受作用をすれば三対象目的が完成されます。家庭においてみれば、神様を中心に男性(主体)と女性(対象)があってその子女がいます。ここで神様が主体になれば残りは第1対象(男性)、第2対象(女性)、第3対象(子女)です。

その次に男性が主体になれば第1対象が神様で、第2対象が女性、第3対象が子女になります。女性が主体になるならば第1対象が神様、第2対象が男性、第3対象が子女になります。子女(合成体)が主体になるならば第1対象が神様で、第2対象がお父さん、第3対象がお母さんになります。4つの存在がそれぞれ主体の位置に立つ時に残りの三つの存在は三対象の位置に立つことになります。ここで中心はいつも神様です。

네 존재가 수수작용을 하면 삼대상목적이 완성됩니다. 번식으로 하나가 분립되더라도 네 존재가 서로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이때 관계성을 맺는 이유는 수수작용을 통해 하나되기 위해서입니다.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한 분 속에서 나온 모든 존재가 원리의 본체를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 요소가 있지만 당신 스스로도 수수작용을 해서 분립합니다. 분립되어 나온 네 존재는 반드시 수수작용을 해야 합니다.

아담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해와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나옵니다. 존재하는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 분의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존재가 삼대상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면 삼대상목적을 완수하게 됩니다. 목적이 하나니까 한 점에서 출발해 동기도 같고, 방향도 같습니다.

【翻訳】

4つの存在が授受作用をすれば三対象目的が完成されます。繁殖によって一つが分立しても4つの存在が互いに関係性を結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時、関係性を結ぶ理由は授受作用を通じて一つになるためです。原理の本体であられる1人の方の中から出てきたすべての存在が原理の本体に似るのでそうなのです。神様の中に二つの要素があるのですが神様自らも授受作用をして分立します。分立して出た4つの存在は必ず授受作用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アダムの目的も神様の中から、エバの目的も神様の中から、子女の目的も神様の中から出てきます。存在する位置はそれぞれ違いますが目的は一つです。皆が一人の方である神様によって出てきたためです。4つ存在が三対象基準を作って授受作用をすれば三対象目的を成しとげることになります。目的が一つなので一点から出発して動機も同じで、方向も同じです。

그런데 동기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다르다는 말은 동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네 존재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기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아닙니다.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翻訳】

ところで動機が違って方向が違えば目的も変わります。したがって目的が違うという言葉は動機も違って方向も違うという意味です。

4つの存在の中心は必ず神様です。すべての存在の中心は神様です。すべての動機は神様から始まります。動機は人間ではありません。お父さんでもお母さんでも子女でもありません。動機はいつも神様からくるのです。それで自分が動機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지금까지 동기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에서 위치가 높아질수록 자기가 주인노릇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소속한 단체는 어려워지고, 그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한 동기가 되게 하고,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가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데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동기여야 합니다.

【翻訳】

ところで今までは動機の中心が自分自身だと考えました。公職で位置が高まるほど自分が主人として振舞おうとします。自分が中心だと考えるのです。そうなる時、彼が所属した団体は難しくなり、その人は自身の位置を失うことになります。最も重要なのは開始と過程と終わりが同一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根本は神様です。したがって神様を中心とする動機になるようにし、いつも心の中心を神様に置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考えることと活動するすべてのことが神様の意志と一致するののかということは、私たちがいつも考え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なのです。それ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それを忘却するところで自分の高ぶりと自分を思い出します。いつも神様が動機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경 요한복음 16 장 13 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는 당신 고집만으로 서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열어 놓되 그 내용이 뜻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아냐를 꼼꼼이 따져야 합니다.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翻訳】

聖書ヨハネ福音 16 章 13 節に'しかし真理の聖霊が来られれば、彼がお前たちをすべての真理の中心に引き渡されるだろうとか、彼が自分の意志で話さなくてもただ聞くことを語って将来ことをお前たちに知らせられるであろう。'と記録されています。イエス様が聖霊が来られれば、する仕事に対してあらかじめおっしゃったのです。

メシアが来られる目的は神様の御旨を成し遂げるためです。神様の御旨を持ってこられたメシアは神様の意志だけで立たれるのではありません。したがって神様の御旨を成し遂げるために、その方がすることに対してどこの誰もあだこうだと言うことができません。絶対的なお父様の御旨を持ってきて成し遂げようとされるのでそうなのです。

周辺の人々の話は聞く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東西南北に開けておくものの、その内容が御旨を

成し遂げていくのに役に立つことができること分かるかを念入りに問い詰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反対になるのものを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万一、それが神様がしようと思うことならば一緒に協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사위기대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네 존재의 근본기대를 사위기대라고 합니다. 네 존재가 상대방 기준을 조성한 터전에서 수수작용하여 상대방목적을 완성하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수수작용을 하면 상대방 자체가 모두 합목적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목적이 완성되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주체가 수수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대상이 수수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님에서 분리된 주체와 대상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며, 주체와 대상 사이에 태어난 아들딸들도 주체인 아버지와 주고받고, 대상인 어머니와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翻訳】

(3) 四位基台

正分合作用によって成り立った4つ存在の根本基台を四位基台といいます。4つの存在が三対象基準を作った根拠地で授受作用をして三対象目的を完成すれば四位基台が成り立ちます。授受作用をすれば三対象自体が全部合目的性を持つ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三対象目的が完成されれば四位基台が成り立つのです。

四位基台が成り立つ過程を見れば、先に神様と神様から分立した主体が授受作用をして、その次に神様と神様から分立した対象が授受作用をします。また、神様で分立した主体と対象が互いに授受作用をしながら、主体と対象の間に生まれた息子娘も主体であるお父さんと授け受けして、対象であるお母さんと授け受けします。したがって縦的に見る時は神様と授け受けするのです。それで子女も神様をお父様というのです。

사위기대의 의의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창조목적 완성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비로소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기대입니다. 사위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위기대는 곧 존재기대이기도 합니다. 사위기대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세워지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밤중에 깊은 산골이나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나 허허벌판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나침반만 있으면 동서남북 방향을 잡게 되고 네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동서남북이라는 사위기대 속에서 존재 위치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느냐, 주체의 입장에 있느냐, 대상의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 합성체의 입장에 있느냐?’를 알고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존재기대가 확실해야 합니다.

【翻訳】

四位基台の意義

四位基台は神様の創造目的の完成基台です。神様の理想がはじめてこの地上に実現される基台です。四位基台が成り立たなければ神様の御旨は完成されません。

四位基台はまさに存在基台です。四位基台は東西南北、四方を示すのです。東西南北が立てられれば私がどの位置にあるのか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真夜中に深い山奥や太平洋のように広い海や荒野のように何も見えない所にあっても羅針盤さえあれば東西南北の方向を定めることになりあなたの位置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それは東西南北という四位基台の中で存在位置が立てられたた

めです。

‘私が神様の立場にあるのか、主体の立場にあるのか、対象の立場にあるのか、でなければ合成体の立場にあるのか?’を知って自身を正しく立て直すためには存在基台が確實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위기대는 사랑의 근본기대입니다.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모든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에서 생겼고 사랑의 의해서 나왔는데, 사랑의 본체가 부모입니다.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소생적인 사랑입니다. 분리된 아담과 해와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체처럼 느끼고 체휼할 수 있게끔 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사랑은 장성적인 사랑에 해당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아들딸을 낳으면 그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는 손자손녀가 됩니다.

【翻訳】

四位基台は愛の根本基台です。愛の本体は神様です。神様のよってすべての存在が誕生しました。すべての存在は愛によって生じたのであり、愛のよって出てきたのですが、愛の本体が父母です。

愛の根本が神様から始まったのですが、神様の愛は蘇生的な愛です。分立したアダムとエバはお父様の愛を実体のように感じて体恤することができるがするようにする対象なのでアダムとエバの愛は長成的な愛に該当します。アダムとエバが息子娘を産めばその子女がはじめて神様の前には孫、孫娘になります。

하나님이 1 대라고 한다면 아담과 해와가 2 대가 되고, 그 자녀가 3 대가 됩니다. 3 뎨인 손자손녀의 사랑은 완성적 사랑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생적 사랑, 부부의 사랑은 장성적 사랑, 자녀의 사랑은 완성적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사랑의 근본기대가 형성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녀인 2 대는 가졌지만 손자인 3 대를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기대도 세울 수가 없었고, 따라서 창조목적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翻訳】

神様が1代だとするならばアダムとエバが2代になり、その子女が3代になります。3代である孫、孫娘の愛は完成的愛に該当します。神様の愛は蘇生的愛、夫婦の愛は長成的愛、子女の愛は完成的愛になるのです。ここではじめて愛の根本基台が形成されます。

アダム、エバが墮落したという話は神様は子女である2代は持ちましたが孫である3代を持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話です。したがって永遠性を持つ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神様は存在基台もたて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し、したがって創造目的も完成できませんでした。

사위기대는 선의 근본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본체입니다. 선의 뜻은 하나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또 아담과 해와가 낳은 아들딸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의 실체이고 해와도 선한 뜻의 실체입니다. 그 둘이 선의 실체이기 때문에 수수작용을 통해 태어난 자녀도 선의 실체가 됩니다. 실체인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선의 대상이 됩니다. 사위기대는 선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의 근본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선의 근본기대는 볼래 아담과 해와가 세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翻訳】

四位基台は善の根本基台です。神様は善の本体です。善の御旨は神様一人で成し遂げるのではなく、分立したアダムとエバを通じて、また、アダムとエバが産んだ息子娘を通じて成し遂げられる

のです。

アダムは神様の善なる御旨の実体であり、エバも善なる御旨の実体です。その二人が善の実体なので授受作用を通じて生まれた子女も善の実体になります。実体である彼らが皆、神様の前に善の対象になります。四位基台は善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が善なる御旨を成し遂げる位置なので善の根本基台になるのです。善の根本基台は本来アダムとエバが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位置です。

아담과 해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인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담은 장자 중의 장자요, 해와는 장녀 중의 장녀입니다. 그 둘이 완성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딸들은 아담, 해와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서 기르지만 그 부모도 스스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중심입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를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翻訳】

アダムとエバは初めて神様が作っておかれた人間の先祖です。神様の立場から見る時アダムは長子のうちの長子であり、エバは長女のうちの長女です。その二人が完成して、はじめて神様の体となり、神様の息子、娘になれば、そこから生まれた息子、娘はアダム、エバの子女になると同時に神様の子女になるのです。

私たちの先祖が墮落しなかったとすれば私を生んでくれた父母がまさに神様です。私が私の父母によく仕え、侍れば、それがまさに神様に侍り仕えることです。私の父母もやはり同じことです。私を産んで育てるのですが、その父母も自ら神様に侍って仕えることが中心です。私が父母から生まれたので私はその父母に侍り仕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まさに神様に侍る気持ちだということです。

사위기대는 힘의 근본기대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세워 힘의 작용하는데, 그것을 사위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힘의 본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 자체도 사위기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위기대를 세워 역사해야 모든 힘이 발동하고, 선의 실체로 사랑과 존재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실체적으로 찾으려고 한 대상이 후해와입니다. 후해와를 찾기 위해서 기대를 세운 것이 요셉 가정과 사가랴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후해와를 찾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기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翻訳】

四位基台は力の根本基台です。力というものはいつの時にも出て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基台を立てて力が作用しますが、それを四位基台といいます。神様は力の本体です。その神様の力自体も四位基台型を備えています。

イエス様もこの地に来られて四位基台を立てて役事してこそ、すべての力が発動して、善の実体として愛と存在基台が成り立つ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イエス様が神様を中心として心と体が一つになり、実体的に探そうとした対象が後のエバです。後のエバを探するために基台を立てたのがヨセフ家庭とサガリヤ家庭です。ところがイエス様は後のエバを探せませんでした。能力の基盤を失ってしまったのです。

사위기대는 또 3 단계의 근본기대입니다. 정분합은 소생, 장성, 완성 3 단계 발전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발전단계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분립하고 주고받으면 합성체가 됩니다. 그

래서 사위기대는 3 단계의 근본기대임과 동시에 정분합이 나오는 발전단계입니다.

【翻訳】

四位基台はまた、3段階の根本基台です。正分合は蘇生、長成、完成の3段階発展法則といいました。それが発展段階です。そこで再び分立して授け受けすれば合成体になります。それで四位基台は3段階の根本基台であると同時に正分合が出てくる発展段階でもあります。

그 다음에 사위기대는 4수, 3수, 12수의 근본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수가 제일 좋은 수입니다. 4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4수를 사탄이 취해 갔습니다. 사탄을 중심한 사위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와야 합니다. 4수가 하나님의 창조목적이자 존재기대이고, 사랑의 근본기대요, 선의 근본기대요, 힘의 근본기대요, 3단계의 근본기대입니다. 그러니까 4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翻訳】

その次に四位基台は4数,3数,12数の根本基台です。神様の立場では4数が一番良い数です。4数が成り立たない限り神様の御旨は完成されません。

人間が墮落して4数をサタンが取って行きました。サタンを中心とする四位基台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を訪ねてこなければなりません。4数が神様の創造目的であり存在基台であり、愛の根本基台であり、善の根本基台であり、力の根本基台であり、3段階の根本基台です。なので4数を尊く思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3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론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신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통일원리'에서는 하나님 본체와 그 본체에서 분립된 아담과 해와를 일체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 해와를 삼위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연한 개체이지만 뜻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위기대는 3수의 근본단계입니다. 사위기대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수는 12수의 근본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그 대상은 아담, 해와, 그 자녀 이렇게 셋입니다. 아담이 주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제1 대상, 해와가 제2 대상, 그 자녀가 제3 대상입니다. 네 존재 중에서 한 존재가 주체에 위치했을 때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이 됩니다. 네 존재가 마주하는 3대상을 모두 합치면 12수가 나옵니다. 그 12수는 완성수임과 동시에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12 제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열두 사람 이상을 직접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열두 제자 이상을 직접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수, 3수, 12수의 근본기대가 사위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翻訳】

3数も神様の中にある数字です。今日キリスト論では聖父、聖子、聖霊の三位神を取り上げて論じます。しかし'統一原理'では神様本体とその本体から分立したアダムとエバを一体として見ます。それで神様、アダム、エバを三位神として見るのです。彼らは厳然な個体ですが御旨で見る時には三位一体になります。神様が望む四位基台は3数の根本段階です。四位基台が3段階で成り立ちます。そして3数は12数の根本基台です。

神様が主体になる時その対象はアダム、エバ、その子女とこのように三つです。アダムが主体になる時は神様が第1対象、エバが第2対象、その子女が第3対象です。4つの存在の中で、ある存在が主体に位置した時、残りの三つの存在は対象になります。4つの存在が向き合う3対象を全部合わせれば12数が出てきます。その12数は完成数であると同時に完全数です。

それでイエス様にも12弟子があります。人はいくら有能で立派な能力を持っていたとしても十二人以上を直接主管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神様の息子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も十二弟子以上を直接率い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それで4数,3数,12数の根本基台が四位基台の中で成り立つの

です。

사위기대의 종류

사위기대는 개인적 사위기대와 가정적 사위기대, 그리고, 주관적 사위기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3대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翻訳】

四位基台の種類

四位基台は個人的四位基台と家庭的四位基台、そして、主管的四位基台、このように三種類があります。この三種類を通じて3大祝福を成し遂げるのです。

3대축복을 이루는 첫 번째 사위기대는 개인적 사위기대입니다. 개인적 사위기대를 통해 개성이 완성됩니다. 개성의 완성은 인격의 완성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분립되어 나온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본성상과 본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상적인 부분은 하나님 마음인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창조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몸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나온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몸은 하나님 몸을 닮아야 합니다.

【翻訳】

3大祝福を成し遂げる最初の四位基台は個人的四位基台です。個人的四位基台を通じて個性が完成されます。個性の完成は人格の完成を意味します。

人には神様の中で分立して出てきた心と体があります。心と体は神様の中にある時には本性相と本形状でした。神様の性状的な部分は神様は心であり、それが人間の心して創造されて出ました。神様の形状的な部分は神様の体であり、そこから実体として出てきたのが人間の体です。したがって心は神様の心に似なければならず、体は神様の体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

벼 겹질 속에 있는 달콤한 물이 장차 쌀이 되고 볍씨가 되듯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벼 겹질 같은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과 참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지닌 절대적인 아버지이듯이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翻訳】

稲皮の中にある甘い水が将来、米になって種もみになるように、私たちの体は神様の形状に似て稲皮のような形態に与えられました。その中に心を入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神様の心が心情と真の愛で一杯になって溢れて流れるように、私たちの心もその心情と真の愛と人格に似て神様のよう한姿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が原理と法度と秩序を持ったは絶対的なお父様であるように、私たちの体もそのような姿で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아들딸의 자격을 갖추려면 절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인일체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실체를 갖추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이나 몸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야 하지만,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스스로 절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아버지의 씨를 남자가 상속받아 실체화하고, 여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성 어머니의 난자를 지니고 태어났으니 그 절대성 난자가 아버지의 것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 완성입니다.

【翻訳】

人間が神様の神性と神様の心情に似て神様の前に息子、娘の資格を備えるには絶対性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こそ神人一体となり、初めて神様が私の中に入ってきて実体を備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私が神様の聖殿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神様の聖殿は心や体だけをもってな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もちろん心と体が一つ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男性または、女性として自ら絶対性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絶対性のお父様の種を男性が相続して受けて実体化して、女性は神様の中にある絶対性のお母様の卵子を持って生まれたので、その絶対性の卵子がお父様のもとで使われるべきなのです。そのような位置に私が行くことが男性と女性が完成するところです。それがまさに個性完成です。

그런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개성완성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전체를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개인도 완성하고, 하나님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도 영원히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책임분담입니다.

개성을 완성한다는 말은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닮아서 절대성 남자가 되고 절대성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성 남자가 되고 절대성 여자가 되는 것이 바로 개성완성이고 인격완성입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남자)의 생식기는 이 여자가 주인이고, 너(여자)의 생식기는 이 남자가 주인이다.'하는 허락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翻訳】

それでアダムとエバの墮落によって個性完成は無駄に帰しました。'取って食べるな。'という御言に従うことが全体を完成させることです。その御言を守ってこそ、個人も完成し、神様も完成し、神様の御旨も永遠に完成するのです。それがまさに人間責任分担です。

個性を完成するという意味は心と体が神様に似て絶対性の男性になり絶対性の女性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絶対性の男性になり絶対性の女性になることがまさに個性完成であり、人格完成です。そのような男性と女性が原理の本体になられる神様から'私(男性)の生殖器はこの女性が主人であり、君(女性)の生殖器はこの男性が主人だ。'という許諾を受けることが祝福です。

타락한 세계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전체가 사탄을 동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타락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온 세상에 밝히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개성을 완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翻訳】

墮落した世界には神様が入る余裕がありません。人間の心の中に入っ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ので神様も足を下ろす所がありません。人が動くのも、考えることも全体がサタンを動機にするためです。そのような事実を分からないことが墮落人間の問題です。そういう事実を世の中に明らかにして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私たちがこの地で息をして生きている間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す。それがどんなことよりも緊急な神様の御旨です。そのために生きるということが個性を完成した神様の子女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두 번째 사위기대는 가정적 사위기대입니다. 가정적 사위기대를 통해 가정이 완성됩니다. 이상가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정적 사위기대를 완성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상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주의 핵심이고 천주의 축소체입니다. 가정을 확대해 놓은 것이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입니다. 영계와 육계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일원리'에서 천

주대가족을 편성한다고 한 것입니다.

【翻訳】

二番目の四位基台は家庭的四位基台です。家庭的四位基台を通じて家庭が完成されます。理想家庭が成り立つという意味です。家庭的四位基台を完成してこそ、はじめて神様の理想を実現する理想家庭になるのです。

家庭は宇宙の核心であり、宇宙の縮小体です。家庭を拡大しておいたのが氏族、民族、国家、世界、宇宙です。霊界と肉界はまさに家庭から始まります。それで'統一原理'では宇宙大家族を編成するといったのです。

세 번째 사위기대는 주관적 사위기대입니다. 주관적 사위기대를 통해서는 주관성이 완성됩니다. 인간의 주관성이 완성되어야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물세계를 지으실 때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탁자 하나도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 쓰이는 목적에 따라 설계도 달라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하고, 재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서 존재세계를 창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翻訳】

三番目の四位基台は主管的四位基台です。主管的四位基台を通じては主管性が完成されます。人間の主管性が完成されてこそ理想世界が成り立ちます。

神様が万物世界を作られる時の困難を、私たちは推察もできません。私たちは小さいテーブル一つも容易に作れません。使われる目的により設計図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くて、技術もなくてはならなくて、材料も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す。神様が空虚で混沌としている中で存在世界を創造するのが容易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창조 당시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고 다닐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도 그냥 밟아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 당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전체를 투입해서 지어 놓은 만물세계입니다. 인간에게 주인이 되어 그 만물세계를 주관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지니지 않는 한 만물을 주관한 자격이 없습니다. 심정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참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심정과 참사랑이 완성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주관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 로마서 8 장 19 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주인, 창조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만물도 주관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관성이 완성됩니다. 그런 세상이 이상세계입니다. 그 세계에는 절대싸움이 없습니다.

【翻訳】

創造当時の神様の心情を分かるならば一つの草もむやみに踏んで歩くことができません。過ぎ行く蟻もそのまま足で踏んで殺すことができません。それが創造当時の神様の心情です。神様が最善を尽くして心血を注いで泣きながらすべてを投じて作っておいた万物世界です。人間に対して主人になってその万物世界を主管しなさいといったので、どれくらい福々しいこと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

神様の心情と愛を持たない限り万物を主管する資格がありません。心情で万物を主管して真の愛で万物を治めるべきなのに、心情と真の愛が完成されなかった位置では主管性を発揮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で聖書のローマ書 8 章 19 節に'被造物の待ちこがれることは神様の息子たちの現れることであるから。'と書かれてあります。愛の主人、創造の主人であっても神様が許諾された目的と価値を失ってで生きる人間には万物も主管を受け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す。

神様の創造の動機と目的にしたがって生きる人になった時、初めて主管性が完成されます。そのような世の中が理想世界です。その世界には絶対に戦いがありません。

사위기대의 존재양상

사위기대의 존재양상은 원형운동을 통해 결정됩니다. 한 전과 한 점은 연결해도 직선밖에 안 됩니다. 직선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합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원을 형성해야 영원성을 띠게 됩니다.

두 점을 이어 놓은 것이 선인데 원을 이루려면 그 선이 수수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만 가지고는 수수작용이 안 됩니다. 중심이 세워져야 비로소 상하가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우와 좌가 주고받습니다. 전과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한 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翻訳】

四位基台の存在様相

四位基台の存在様相は円形運動を通じて決定されます。ある点とある点は連結しても直線にしかならないのです。直線はいつかは必ず消滅します。永遠性がありません。円を形成してこそ永遠性を帯びることになります。

二点をつないでおいたのが線なので円を成し遂げるにはその線が授受作用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ころで二つだけ持つのでは授受作用にはならないのです。中心が立てられてこそはじめて上下が授け受けす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中心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左右も同じことです。中心があってこそ右と左が授け受けします。前と後も同じことです。中心がなければ一点で終わるのです。

그런데 중심축이 생기면 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도 돌고 우좌도 돌고 전후도 돕니다. 모든 존재는 원형운동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각도를 달리하면 구형운동이 됩니다. 그 자체는 원형이지만, 한 중심을 통해서 상하, 우좌, 전후가 각도와 위치를 달리하면서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체성을 띤 구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은 둥글니다.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공은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중요합니다. 타락한 세계는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존재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대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동기가 원리본체이고, 중심도 원리본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翻訳】

ところで中心軸が生じれば回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上下も回って、左右も回って、前後も回ります。すべての存在は円形運動から出発しますが、その角度を異にすれば球形運動になります。それ自体は円形ですが、ある中心を通じて上下、左右、前後が角度と位置を異にして授受作用をするので、それが立体性を帯びた球形を成し遂げるのです。

ボールは丸いです。中心をたてなければボールは転がっていきます。そのために中心が重要です。墮落した世界は中心をなくしました。自分の存在価値をなくしました。絶対価値の基準は神様です。いつも動機が原理本体であり、中心も原理本体であるという事実を絶対に忘れてはいけません。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가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동기 자체는 목적이고,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가치입니다.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가치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입니다. 절대가치는 절대성 위에서 세워집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가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절대가치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 요소인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입니다. 절대가치의 기준은 한마디로 절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성

이 세워지면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翻訳】

私がどこへ行こうとしても行こうと思う動機があります。動機は必ず中心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動機自体は目的であり、目的が実現されることが価値です。価値の基準は神様です。それでその価値は絶対変わってはいけません。

絶対価値は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です。絶対価値は絶対性の上に立てられます。世の中の何をもってしても絶対価値をたてることはできません。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の本体が神様です。それで絶対価値の基準は神様であり、絶対価値は神様の最も根本的要素である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なのです。絶対価値の基準は一言で言うと絶対性だと表現できます。絶対性が立てられれば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が成り立つことになります。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에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도 있지.’ 혹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을 보면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생명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생명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반대하면 죽기를 각오하면서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보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결합된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이나 생명이 없으면 혈통도 없습니다. 하나님 본체 안에 있는 참아버지의 절대성 정자는 참사랑의 씨고, 참어머니의 절대성 난자는 참생명의 몸입니다. 참사랑의 씨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 거기에다가 사랑을 동기로 하여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갖지 않은 생식기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翻訳】

‘愛が先か、生命が先か?’において愛が先です。ある人は‘生命があるから愛もあるだろう。’あるいは‘私が生まれたから愛することができる対象もあるだろう。’こう考えます。しかし根本を見れば愛が先です。愛がないのに生命がありえません。愛が先で生命は後です。それで愛のために生命を捨てることさえします。二人が好きで愛するのに反対すれば死ぬことを覚悟して愛を成し遂げようとします。それは生命より愛が先にあるためです。

愛と生命が結びついたものが血統です。愛や生命がなければ血統もありません。神様の本体の中にある真のお父様の絶対性の精子は真の愛の種であり、真のお母様の絶対性の卵子は真の生命の体です。真の愛の種とお母様の子宮です。そこでお父様に会ってそこに愛を動機として種を植えるのです。それで絶対性を持たなかった生殖器は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を相続できません。

참사랑의 특권은 동등한 위치에 서는 동위권, 같이 산다는 동거권, 어디든지 동참할 수 있는 동참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맺어지면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곳에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동참합니다.

남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남자의 것이 되어야 서로 상속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상속권은 집이나 재산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상속권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생식기를 인간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翻訳】

真の愛の特権は同等な位置に立つ同位権、一緒に住むという同居権、どこでも同参できる同参権が与えられます。そうになると人間は神様が持っているすべてを相続して受けることができる相続権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そのような心を持って夫婦が結ばれれば男性がいる所に女性がいて、女性

がいる所に男性がいるのです。どこでも同参します。

男性が最も尊く思うのは女のこととなり、女性が最も尊く思うのは男性のことになって互いに相続権が広がるのです。相続権は家や財産だけを相続して受け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人間の最も重要な相続権は男性と女性の生殖器を相続して受けることです。神様も同じことです。神様の絶対性の生殖器を人間に相続す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こそ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が家庭に現れることとなります。

5. 창조목적 (創造目的)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알아야 인간이 삶의 목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먼저 목적을 두고 구상하시고 그 구상에 따라 설계하신 대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들어 있고, 거기에서 전개된 상대적 관계와 사위기대 등 존재의 정적인 측면이 들어 있고, 수수작용, 정분합작용 등 동적인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원리본체의 자기전개인 동시에 완성을 향한 피조물의 표준입니다.

【翻訳】

神様の創造目的を分かってこそ人間が人生の目標を正しく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前で明らかにしたように、神様の創造は先に目的を置いて構想してから、その構想により設計された通りに成り立ちました。

神様の設計図には性相と形状、陽性と陰性の二性性相が入っており、そこで展開した相対的關係と四位基台など存在の静的な側面が入っており、授受作用、正分合作用など動的な側面が入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構造は原理本体の自己展開であると同時に完成に向かった被造物の標準でもあります。

1) 창조의 동기와 목적 (創造の動機と目的)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기가 없이는 목적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목적이 있다는 말은 동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도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만들다 보니까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翻訳】

創造の動機と目的を区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動機がなくては目的が立てられません。また目的があるという意味は動機があるという意味です。神様の創造にも動機があり、目的があります。無条件に作って見ると被造世界が作られたというのではないのです。被造世界は偶然にできたのではないのです。

(1) 창조의 동기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심정입니다. 심정을 동기로 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심정이 동기와 되었다고 창조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 되고 본질적인 속성이 심정입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이며, 인격의 핵입니다.

심정이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입니다. 정의 충동심은 주고 싶고, 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충동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翻訳】

(1) 創造の動機

神様の創造の動機は心情です。心情を動機として創造が成り立ちました。’原理講論’では心情が動機となったと創造の動機を説明します。心情は神様の本質的属性です。神様の属性の中でも最も根本なっている本質的な属性が心情です。心情は神様の真の愛の根元であり、人格の核です。

心情というのは対象を愛して喜ぼうとする抑制できない情の衝動心です。情の衝動心は与えたくて、為にしたくて、愛したくて耐えることはできない心です。なので情の衝動心を充足するためには対象を創造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나타나면 사랑도 실체적으로 영원하게, 기쁨도 영원하게 나타납니다. 실체는 영원성을 갖지만 무형은 순간밖에 없습니다. 만일 꿈속에서 한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순간은 황홀할지 모르지만 꿈을 깨고 나면 즉시 사라집니다. 죽도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날 때는 무척 반갑고 좋은데, 꿈을 깨고 나면 허전해집니다. 그 원인은 대상 자체가 무형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하고 싶고 기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실체가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과 기쁨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있어야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기쁘고, 대상은 사랑받으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翻訳】

神様の実体対象が現れれば愛も実体的に永遠に、喜びも永遠に現れます。実体は永遠性を持ちますが無形には瞬間しかありません。万一、夢の中である女性が好きで愛すれば、その瞬間はうっとりするかも知れませんが夢から覚めたら直ちに消えます。死ぬほど愛して尊敬する人を夢の中で会う時は非常にうれしくて良いのですが、夢から覚めたら何となく寂しくなります。その原因は対象自体が無形で実体がないためです。

神様には愛したくて、喜びたい抑制できない情の衝動心があるので、それを実現するには必ず実体が必要になります。実体がないければ神様も愛と喜びを実感できません。実体があってこそ神様は愛してうれしくなり、対象は愛されてうれし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

사랑을 주는 주체는 사랑하면서 기쁘고, 사랑을 받는 대상은 사랑받으면서 기쁩니다. 사랑을 했을 때 주체에게 돌아가는 것은 대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심정은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정의 충동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심정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심정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들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되는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아들딸 자리를 거쳐야 하고, 형제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자녀가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면 다시 부부의 자리,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과정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 본체 자체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도 그런 과정을 닮아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翻訳】

愛を授ける主体は愛してうれしくなり、愛を受ける対象は愛されてうれしくなります。愛した時、主体に戻るのには対象があたえる喜びです。心情は愛して喜ぼうと思う情の衝動心だといいました。それは抑制できません。それで創造が始まったのです。

心情だという単語で表現しますが、心情には四種類の類型があります。子女の心情、兄弟の心情、夫婦の心情、父母の心情です。その心情が成熟するのです。子女がいる時に父母になれますが、子女を産むためには先に夫婦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子女は父母から息子娘の位置を経なければならず、兄弟の過程も経なければなりません。子女がそ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成長すれば再び夫婦の位置、父母の位置に進むのです。成長過程はただあ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原理本体自体がそのような過程を体験したために人間もそのような過程に似て完成して行くのです。

(2)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기 위해서 대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한 주체는 피조된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은 주체에게 기쁨을 돌려야 합니다. 주체는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대상은 주체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요, 피조물의 존재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창조한 대상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통해 기쁨을 느낄까요?

【翻訳】

(2) 創造の目的

神様が人間を創造した目的は喜びです。神様は喜びのために対象を創造しました。したがって創造した主体は被造された対象を愛し、その対象は主体に喜びを返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主体は対象を愛して喜び、対象は主体から愛を受けて喜びを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それが神様の創造目的です。被造物の存在目的です。結局、神様の創造目的は創造した対象を通じて喜びを感じる事なのです。

それならば神様はどのような対象を通じて喜びを感じるのでしょうか?

그 첫째가 닮은 대상입니다. 기쁨을 느끼려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주체가 기쁨을 느끼려면 대상이 주체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닮은 대상을 통해 기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 장 27 절)고 한 성서에도, 닮은 대상을 통해 기쁨을 느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翻訳】

その最初が似ていた対象です。喜びを感じるには必ず対象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主体が喜びを感じるには対象が主体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も似ていた対象を通じて喜びを感じます。'神様が自らの形状、すなわち神様の形状のとおりの人を創造され、男性と女性を創造された。'(創世記 1 章 27 節)とある聖書にも、似ていた対象を通じて喜びを感じようと思われた神様の心情が現れています。

둘째는 선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반드시 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 장 20 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뜯어보면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려면 '하나님도 내 안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翻訳】

二番目は善の対象です。神様は善の本体なのでその対象は必ず善の対象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ヨハネ福音 14 章 20 節に'その日、私が父の中に。お前たちが私の中に。私がお前たちの中にあるのをお前たちは分かるであろう。'と語れました。この御言を開いてみると何か不足した部分があります。'私がお前たちの中に。お前たちが私の中にある。'でしたので'私が神様の中にある。'とするには'神様も私の中にある。'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수님은 그런 일체성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은 아들로써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온전한 인간의 실체를 지나기 위해서는 남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체로 지어놓은 아담, 해와가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실체도 완성됩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완전한 실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창조이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翻訳】

イエス様はそのような一体性の問題を説明できませんでした。イエス様がそのようにおっしゃった理由は、自身は息子として父の中に入りましたが、父が完全な人間の実体をすぎるためには男性だけであってはならないからです。

真の父と母の実体として造っておいたアダム、エバが完成した時、神様の実体も完成されます。その時において、はじめて神様は完成した実体の中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夫と妻が一体になった時、神様が喜ぶことができる創造理想が完成されるのです。

셋째는 완전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대상도 완전해야 기쁨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5 장 18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했습니다.

【翻訳】

三番目は完全な対象です。神様は完全な方なので対象も完全であってこそ喜びを感じます。マタイ福音 5 章 18 節に'天にいますお前達の父の完全さのようにお前たちも完全でありなさい。'とあります。

마지막으로 심정의 대상입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 대상도 같은 심정을 지녀야 합니다. 그 심정이 창조의 동기입니다. 심정은 사랑하고 싶고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기 때문에 창조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도 같은 심정으로 창조성을 지녀야 합니다. 심정의 대상이 되면 창세기 1 장 28 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는 3 대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翻訳】

最後に心情の対象です。心情は神様の本質的属性なのでその対象も同じ心情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心情が創造の動機です。心情は愛したくて喜ぼうと思う抑制できない情の衝動心なので創造の動機になりました。その対象も同じ心情で創造性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心情の対象になれば創世記 1 章 28 節の'生育して、繁盛して、地に満ちなさい。地を征服しなさい、海の魚と空の鳥と地に動くすべての生き物を従えなさい。' という 3 大祝福を成し遂げるようになります。

하나님을 닮은 대상, 선의 대상, 완전한 대상, 심정의 대상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그 대상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 앞에서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적인 법도에서 이루어진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 주체인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翻訳】

神様に似た対象、善の対象、完全な対象、心情の対象、この四つの条件を備えない限りその対象は創造主である神様の前に完全な喜びの対象に成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また、子女として父母の前でも喜びの対象になることができません。夫と妻の間もそうです。

すべての関係が神様の秩序的な法度で成り立った実体なので、その実体はこの四つ条件を備えて主体である神様に喜びを返して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 (神様の喜びの為の善の対象)

하나님은 창조된 대상을 통해 기쁨을 느끼기 위해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야 합니다. 창조된 대상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목적입니다.

【翻訳】

神様は創造された対象を通じて喜びを感じるために人間を含んだ被造世界を創造されました。そ

れなので被造物は神様に喜びを返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創造された対象を通じて喜びを感じるのが神様の創造目的であり、神様に喜びを差し上げることが被造物の存在目的です。

(1)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사위기대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위기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 장 28 절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3 대축복을 주셨습니다. 3 대축복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창조목적입니다.

【翻訳】

(1) 神様の運行、神様の喜び

神様は四位基台の上に運行されます。神様が運行する所に喜びがあるので神様の喜びのための善の対象も神様が運行する四位基台で成り立ちます。創世記 1 章 28 節に人間に神様は生育して、繁盛して、万物を主管しなさいという 3 大祝福をくだされました。3 大祝福が神様の御旨、すなわち神様の創造目的です。

성경 마태복음 7 장 21 절에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위기대입니다. 사위기대를 통해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3 대축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3 대축복은 생육하고(제 1 축복), 번성하고(제 2 축복), 만물을 주관하는 것(제 3 축복)입니다. 3 대축복은 성경 창세기 1 장 29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翻訳】

聖書マタイ福音 7 章 21 節には'私に向かって主よ、主よという者が天国にみな入るのでないのです。そうではなく天にいらっしゃる私の父の御旨の通り行う者でこそ入るであろう'と言われましたが、今まで数多くのキリスト教徒は天にいらっしゃる父の御旨が何なのかを知らずに、ただ十字架を信じて、イエス様を信じればみな天国に行くものと思っています。絶対にそうではありません。

天にいらっしゃる父の御旨の通り行う者でこそ天国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天にいらっしゃる父の御旨がまさに神様が喜ぶことができる四位基台です。四位基台を通じて神様が運行される 3 大祝福を完成するのです。3 大祝福は生育して(第 1 祝福)、繁盛して(第 2 祝福)、万物を主管すること(第 3 祝福)です。3 大祝福は聖書の創世記 1 章 29 節に記録された神様の御言に基づきます。

제 1 축복(生育)

제 1 축복은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육은 개성완성을 뜻하는데, 개성완성은 인격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난 것이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성을 닮아난 것이 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몸을 지니고 나왔으니 마음도 몸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상가운데 있는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닮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翻訳】

第 1 祝福(生育)

第 1 祝福は'生育しなさい。'という神様の御言です。生育は個性完成を意味しますが、個性完成は人格完成者になることです。

神様の性相に似て出たきたものが心で、神様の形状に似て出てきたものが体です。人間は神様に似た心と体を持って出てきたので心も体も神様に喜びを返す対象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性相の中である心情と真の愛と人格に似た心になってこそ神様も喜ばれます。

그런 마음은 없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과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본성상의 본질이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입니다. 그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몸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몸을 가져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나 자신이 절대성을 지켜야 합니다. 심정도 절대성과 관계되어 있고, 몸도 절대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 자체가 절대성 위에 세워져야 하고, 내 몸도 절대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인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翻訳】

そのような心はなく、猜疑、嫉妬をして他人を憎み、恩怨讐視して他人がうまくいくのを嫌う心のある人は神様に喜びを差し上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神様の心に似た私たちの心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心、すなわち本性相の本質が心情と真の愛と人格です。その心情と真の愛と人格が私たちの心の中に一杯になって溢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と同時に体は原理と法度と秩序的な生活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のような心と体を持ったとしても、それだけでは完全には神様に似ることができません。私が神様に似て神様が私の心に入ってきて生きられるようにするには、私自身が絶対性を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心情も絶対性と関係しており、体も絶対性と関係しています。神様と一体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私の心自体が絶対性の上にたてなければならず、私の体も絶対性の上にた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次に神人一体が成り立つのです。

성서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 장 48 절)는 말씀은 인간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 장 10 절)라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일깨워줍니다. 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 정 20 절)하는 말씀은 신인일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신인일체를 의미합니다.

제 1 축복인 개성완성은 인간이 신성,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사람이 곧 천국인입니다. 그러므로 심정교육은 개성을 완성한 천국인을 만듭니다. 개성을 완성하는 첫 번째 단계인 생육은 천국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교육은 심정교육입니다.

【翻訳】

聖書の'天におられたおなたたちの父が完全であるのと同じようにお前たちも完全ありなさい。'(マタイ福音書 5 章 48 節)という御言は人間の完全性を意味しており、'お前たちが神様の聖殿であることと神様の聖霊があなたたちの中に居られるのを分らないのか。'(コリント書 3 章 10 節)という御言は人間が神様の聖殿であることを悟らせませす。また'その日に私が父の中に、私がお前たちの中にあるのをお前たちが分かるであろう。'(ヨハネ福音書 14 章 20 節)という御言は神人一体を意味します。人間が全て神様に似た姿を備えれば神様が入って暮らせるようになる聖殿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皆が神人一体を意味します。

第 1 祝福である個性完成は人間が神性、神様の心情を持つことです。神様の心情を持った人がま

さに天国の人です。したがって心情教育は個性を完成した天国の人を作ります。個性を完成する最初の段階である生育は天国の人、神様の民になることなので、その民の最も根本的な教育は心情教育です。

심정의 완성은 절대성 위에 세워집니다. 절대성을 지키고 심정과 원리와 법도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생활을 하게 됩니다. 개성완성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성장기간에 책임분담을 통해 마음과 몸이 완성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 장 28 절의 제 1 축복을 완성하기 위한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창세기 2 장 17 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분담의 핵심은 제 1 축복에 있습니다.

【翻訳】

心情の完成は絶対性の上に立てられます。絶対性を守って心情と原理と法度的な生活をする人は天国生活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個性完成を通じて神様に似た人間になるのです。

神様に似るとという言葉は成長期間に責任分担を通じて心と体が完成していくことを意味します。創世記 1 章 28 節の第 1 祝福を完成するためのものが'善惡の果を取って食べるな.' (創世記 2 章 17 節)という御言です。そのために責任分担の核心は第 1 祝福にあります。

제 2 축복(繁殖)

제 2 축복은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손의 번식을 통한 가정완성. 곧 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이상가정은 생육해서 절대성의 본체를 닮은 남자와 절대성의 본체를 닮은 실체 여자가 되어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은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翻訳】

第 2 祝福(繁殖)

第 2 祝福は'繁殖しなさい.'という神様の御言です。それは子孫の繁殖を通じた家庭完成。すなわち理想家庭を作ることの意味します。

理想家庭は生育して絶対性の本体に似た男性と絶対性の本体に似た実体の女性になり、神様によって祝福を受けることから始めます。その祝福は生殖器の主人を許諾されるのです。

횡적인 생식기의 주인은 상대이지만, 종적인 생식기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절대성 생식기를 통해서 비로소 남녀가 하나 될 수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둘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고, 그 둘이 사랑하게 태어난 아들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도 하나님이고, 그 요소도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翻訳】

横的な生殖器の主人は相対ですが、縦的な生殖器の主人は父なる神様です。絶対性の生殖器を通じてはじめて男女が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父親になられる神様もその中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それで神人一体が成り立つのです。

男性と女性が祝福を受けて二人が互いに愛するのは神様の愛であり、その二人の結婚は神様の結婚であり、その二人が愛するようにして生まれた息子娘たちは神様の子女になります。二人が愛することができる愛の本質も神様であり、その要素も神様と全く同じです。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정자의 씨도 결국에 하나님의 생식기와 일체가 된 정자의 씨가 되고, 해와도 절대성 어머니의 난자를 가졌지만, 하나님 안의 절대성과 하나된 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성을 완성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개성을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번식한 자녀를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은 선의 세계, 즉 천국의 구성원입니다. 선민이 천국생활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규범교육이 필요합니다.

【翻訳】

そのためにアダムが持っている精子の種も結局は神様の生殖器と一体になった精子の種になり、エバも絶対性のお母さんの卵子を持ちましたが、神様の中の絶対性と一つになった卵子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個性を完成した男性と女性です。

個性を完成した男性と女性が家庭を作り繁殖した子女を善民といいます。善民は善の世界、すなわち天国の構成員です。善民が天国生活をするにはそこにふさわしい規範教育が必要です。

제 3 축복(万物主管)

제 3 축복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그것은 만물주관, 곧 주관성완성을 의미합니다. 주관성을 완성한 선민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이상세계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대하면서 사랑하고 주관할 때, 비로소 제 3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제 1 축복, 제 2 축복과 함께 제 3 축복이 완성되면 선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翻訳】

第3祝福(万物主管)

第3祝福は'地を征服しなさい。海の肉と空の鳥と地に動くすべての生物を治めなさい。'です。それは万物主管、すなわち主管性完成を意味します。主管性を完成した善民で成り立った世界が理想世界です。

人間が万物を神様と同じ心情で対して愛して主管する時、はじめて第3祝福が成り立ちます。第1祝福、第2祝福と共に第3祝福が完成されれば善の世界が成り立ちます。

가정이 종족, 민족, 국가를 거쳐 확대된 것이 세계입니다. 선의 세계는 선민으로 구성된 가정이 확대되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선의 세계가 그대로 천상까지 옮겨지면 비로소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선의 세계만으로는 진정한 이상세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세계라 부려면 천상과 지상세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은 지상세계만이 아니라 천상세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翻訳】

家庭が宗族、民族、国家を経て拡大したのが世界です。善の世界は善民で構成された家庭が拡大して成り立った世界です。地上で成り立った善の世界がそのまま天上まで移されれば、はじめて理想世界が実現されるのです。

地上で成り立った善の世界だけでは真の理想世界だと言うことができません。理想世界と呼ぶには天上と地上世界が含ま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創造の領域は地上世界だけでなく天上世界をも含むためです。

이상세계는 곧 천국입니다. 천국도 지상과 천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상천상천국입니다. 그 세계를 '천일국'이라고 합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된 가정을 단위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이 확대된 것이 세계와 천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의지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형님과 동생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모델 가정이 천주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 가정을 확대하면 곧 이상세계가 되고 천일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그런 것처럼 단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자체에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그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온전히 하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기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규범교육과 함께 기술교육, 지식교육, 체육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翻訳】

理想世界はすなわち天国です。天国も地上と天上を含むので地上天上天国です。その世界を'天一国'といいます。天一国は二人が一つになった家庭を単位として成り立った世界です。

一つの家庭の構成員が拡大したのが世界と宇宙です。父母が子供を信じて頼り、子供が父母を信じて頼り、お兄さんと弟が互いに信じて頼るモデル家庭が宇宙の中心であり核になります。そのような家庭を拡大すればすなわち理想世界になり天一国になるのです。

家庭の構成員がそうしたように団体をなして住む人々はどこに行ってもそれ自体に規範があって、秩序があってその規範と秩序を守ってこそ全てが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ような世界では技術も必要であり、知識も必要で体力も必要です。規範教育と共に技術教育、知識教育、体育教育も並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2) 3 대축복 중의 축복, 축복결혼

3 대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축복결혼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절대성 위에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몸을 지닌 실체가 되면, 그들 스스로 생식기의 주인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하게 됩니다. "아담이 지닌 생식기의 주인은 해와다. 해와가 지닌 생식기의 주인은 아담이다." 이렇게 생식기의 주인을 원주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지닌 생식기의 주인이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크고 귀한 복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복을 모두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 대축복입니다.

【翻訳】

(2) 3 大祝福の中の祝福、祝福結婚

3 大祝福の中で最も重要な祝福は祝福結婚です。アダムとエバが絶対性の上で神様に似た心と体を持った実体になれば、彼らは自ら生殖器の主人を決めるのではなく神様が生殖器の主人を許諾するようになります。"アダムが持った生殖器の主人はエバだ。エバが持った生殖時の主人はアダムだ。"このように生殖器の主人を原主人である神様から許諾を受けるのです。それが祝福です。

祝福を受けたら、はじめて神様が"私はお前たちが持った生殖器の主人となるので、私がお前たち中に入って生き返るのだ。"というのです。神様が人間に授ける福の中で大きくて大事な福が三種類であり、その三種類の福を全部人間に与え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が 3 大祝福です。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육신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찾아올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큰 복이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翻訳】

神様が人間にくださった最初の祝福は身体をくださったことです。身体は神様が訪ねてくる聖殿です。神様が人間の中に入って一緒に暮らすということです。それ以上大きな福がありません。私が見ることが神様が見ることであり、私が考えることが神様が考えることなのです。私が行く所がまさに神様が行く所だということです。したがって人間はむやみに生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

두 번째는 절대성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데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못났더라도 당신이 허락해준 남자와 여자의 육신을 통해 사랑을 체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체의 사랑을 하고 아들딸

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3대 축복 가운데 두째 축복입니다.

【翻訳】

二番目は絶対性の愛を許諾されたことです。神様は愛したいのですが身体がありません。それで身体を持った人間を創造しました。いくら醜くてもご自分が許諾した男性と女性の身体を通じて愛を体恤でしたい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人間が実体の愛をなして息子、娘を産むのです。それが3大祝福の中で二番目の祝福です。

세 번째는 만물주관권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성 위에서 책임분담을 완성하면 하나님도 인간도 함께 해방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중심한 책임분담해방권완성입니다. 하나님도 책임분담에서 해방되고, 인간도 책임분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책임분담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해방권이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성 위에서 책임분담 해방권을 완성해야 합니다.

【翻訳】

三番目は万物主管権を授けられたことです。人間が絶対性の上で責任分担を完成すれば、神様も人間も共に解放圏を完成す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絶対性を中心とする責任分担解放圏完成です。神様も責任分担から解放されて、人間も責任分担から解放されるのです。神様と人間が責任分担から解放されるので解放圏といったのです。絶対性の上で責任分担解放圏を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요약하면,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이 일체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인간에게 절대성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딸들을 번식하는 것이고, 세 번째 축복은 당신이 지어 놓은 만물세계를 인간이 대신 주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제2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축복결혼입니다. 결혼축복아니라 축복결혼입니다.

【翻訳】

要約すれば、最初の祝福は神様が人間の中に入って神様である父と人間が一体化することであり、二番目の祝福は人間に絶対性を許諾して神様が人間を通じて愛と喜びを感じて人間を通じて御自身の息子娘を繁殖することであり、三番目の祝福は御自身が作っておかれた万物世界を人間が代わりに主管することです。人間が神様に似た第2の創造主として万物を主管するという意味です。

そのために3大祝福の中で最も大事な祝福が祝福結婚です。結婚祝福ではなく祝福結婚です。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는 일은 3대 축복을 이루면 실현됩니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험도 많이 받습니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언제나 사탄이 가로막기 때문에 마음은 복을 받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사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탄이 허락지 않는 것을 주면 그것은 참소의 대상이 됩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면 안 됩니다."하고 참소하면서 사탄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만큼 주고,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더 주는 것입니다.

【翻訳】

人間が神様の喜びのための善の対象になることは3大祝福を成し遂げれば実現されます。そのような位置に進むためには試験もたくさん受けます。完成にならない状態ではいつもサタンが遮るので心は恩恵を受けたくて、さらに愛したくて、より良いところで行きたいと思っても、サタンがそれを許諾しません。

神様の子女としてサタンが許諾しないことを与えれば、それは讒訴の対象になります。“資格もない人にそれを授けてはいけません。”と讒訴しながらサタンがそれを持っていきます。それで神は試験をしてその試験に合格しただけ与え、成長すれば成長しただけより多く授けるのです。

하루아침에 다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나무는 싹이 나면 순식간에 자랍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쑥 커서 며칠 사이에 다 커버립니다. 그런데도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커가면서 마디를 짓고 큼니다. 만약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바람에 쉽게 부러질 것입니다.

신앙노정도 대나무와 같습니다. 대나무와 같이 마디를 짓고 가야 합니다. 마디를 지어 놓으면 거기에다 물을 부어도 물이 아래 칸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마다 마디를 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탄이 아무리 뒤흔들고 시험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워 놓고 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翻訳】

一日で育ちきる木はありません。それでも竹は芽が出ればあっという間に育ちます。一晩寝て起されればぐっと大きくなって数日の間に大きくなってしまいます。それでも竹は節があるので折れません。竹は高くなるにつれて節を作って大きくなるです。もし竹に節がないならば風に簡単に折れるでしょう。

信仰路程も竹と同じです。竹とともに節を作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節を作っておけばそこに水を注いでも水が節目より下に降りて行きません。それで成長するたびに節を作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いくら大変でも、サタンがいくら揺るがして試験をしても'私はもうこれ以上は降りて行かない。'という基準を立てておいて行くことが成熟した信仰人の姿勢です。

모든 존재에는 존재목적이 있는데, 존재목적에는 성상적 목적과 형상적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원리에 의해서 한 분의 하나님 안에서 피조세계가 실제로 전개되어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상적부분과 형상적 부분을 닮아서 나타난 실체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본으로 해서 삼라만상을 창조했습니다. 삼라만상도 성상과 형상을 지니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체인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목적에는 성상적인 부문이 지향하는 성상적 목적이 있고, 형상적인 부문이 추구하는 형상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翻訳】

すべての存在には存在目的がありますが、存在目的には性相的目的と形状的目的があります。創造原理によって一人の方である神様の中で被造世界が実体に展開して出たのが、神様の性相的部分と形状的部分に似るように現れた実体が人間です。

その人間をもとにして森羅万象を創造しました。森羅万象も性相と形状を持って存在するということです。本体である神様が二性性相の中和的統一体として存在するためです。それで存在目的には性相的な部門が指向する性相的目的があり、形状的な部門が追求する形状的目的があるのです。

성상적 목적은 전체 목적을 뜻하는 것으로서 공적이며, 형상적 목적은 개체 목적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적입니다.

개체 목적은 개체가 존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개체 목적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체가 존재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개체가 존재함으로써 전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翻訳】

性相的目的は全体目的を意味することとして公的であり、形状的目的は個体目的を意味することとして私的です。

個体目的は個体が存在するための目的ですが全体のためなのです。個体目的にも二種類がありま

す。個体が存在するための目的があり、個体が存在することによって全体目的を成し遂げられるようにする目的があります。

한편 전체목적은 개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서 그 개체로 하여금 전체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전체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과 몸을 놓고 볼 때, 마음은 자체를 따라오도록 몸을 이끅니다.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동기면서 몸에게 목적지도 제시합니다. 방향도 목적도 그 안에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부여한 동기에 따라 마음이 제시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목적은 성상적인 목적이며, 개체목적은 형상적인 목적입니다.

【翻訳】

一方、全体目的は個体を保護して育成してその個体に、全体目的を成し遂げられるようにして、直接全体が指向する目的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役割をします。

心と体を置いて見る時、心は自体についてくるように体を導きます。心は身を処する動機としながら体に目的地も提示します。方向も目的もその中にあります。体は心が付与した動機によって心が提示する目的と方向に動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全体目的は性相的な目的であり、個体目的は形状的な目的なのです。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기에 먹습니다.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개체목적이고,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전체목적입니다. 개체목적이 자기를 중심한 사적인 목적이라면, 전체목적은 공적인 목적입니다. 반드시 공과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삼니다. 그것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또 공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翻訳】

私たちは生きるためにご飯を食べます。食べるために生き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生きて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目的があるので食べます。ご飯を食べて生きるということは個体目的であり、より大きい目的のために生きるということは全体目的です。個体目的が自分を中心とする私的な目的ならば、全体目的は公的である目的です。必ず公と私があります。

ところで原理を分からない人は公的なのか、私的なのかを区分できずに生きています。それも罪を犯すことです。また、公的であることを忘れて自分思いのままに生きるということも罪を犯すことです。

모든 존재의 근본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본체이자 힘의 본체로 계십니다. 그 힘이 힘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소림자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림자가 소림자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소림자로 존재하면서 원자를 형성하기 위해서이고, 원자가 원자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원자로 존재하면서 분자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자는 분자로서 존재하지만 그 분자들이 모여서 식물을 형성하고, 식물은 동물의 환경이 되고 먹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과 모든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은 피조만물 전체의 요소가 총합된 실체상입니다. 따라서 인간 하나가 완성되면 소림자에서도부터 원자, 분자,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피조세계 전체가 완성되고, 하나님도 완성됩니다. 인간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 전체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힘은 소림자를 비롯하여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인간에게까지 순환하면서 수수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翻訳】

すべての存在の根本はエネルギーです。神様は無形の本体であり力の本体としておられます。その力が力として存在する目的は素粒子を形成するためです。素粒子が素粒子として存在する目的

は、素粒子として存在して原子を形成するためであり、原子が原子として存在する目的は原子として存在して分子を形成するためのものです。分子は分子として存在するのですが、その分子が集まって植物を形成し、植物は動物の環境になって餌になります。その次に動物とすべての環境は人間のために存在します。

人間は被造万物全体の要素が総合された実体相です。したがって人間一人が完成されれば素粒子から原子、分子、植物、動物に至るまで被造世界全体が完成され、神様も完成されます。人間が完成され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その全体が完成されません。神様は力の本体なので、その力は素粒子をはじめとして原子、分子、植物、動物、人間にまで循環して授受作用が起きるようにするので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고, 가정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시에 아들딸을 낳아 번식하면서 그 씨족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씨족은 씨족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민족을 형성하고, 민족은 민족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면 민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민족의 울타리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가로서 존재하면서 모여서 세계를 이룹니다. 한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하면 세계의 여러 국가가 고통을 겪습니다. 세계는 또 천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계 인류로 존재하면서 천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翻訳】

個人は個人として存在するのと同時に家庭のために存在し、家庭は家庭のために存在するのと同時に息子娘を産んで繁殖し、その氏族のために存在します。そして氏族は氏族として存在するのと同時に民族を形成し、民族は民族として存在するのと同時に国家を形成するために存在します。そのために国家が消えれば民族もなくな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は民族の垣根が国家であるためです。

国家は国家として存在し、集まって世界を成し遂げます。一国家が経済危機に処すれば世界の色々な国家が苦痛を味わいます。世界はまた、宇宙の内にあります。そのために世界人類が存在する目的は世界人類として存在し、宇宙の目的を成し遂げるために存在するのです。

천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에도 거하시게 됩니다. 씨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의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존재세계는 한 분의 하나님을 닮아서 실체도 전개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눈은 상대를 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상이 없고 눈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보이는 대상도 눈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모두 연체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유기체라고 합니다.

【翻訳】

宇宙の主人は神様です。神様は個人の主人だけでなく、家庭の主人です。それで神様は私の中に居られて、夫婦が家庭を作れば家庭にも居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氏族、民族、国家、世界、宇宙の中心も神様です。すべての存在世界は一人の方である神様に似て実体として展開した世界なので、彼らは連体を成し遂げています。皆が有機体なのです。なのでお互い離そうとしても離すことはできない関係性を持っています。

目は相手を見るために存在します。したがって見える対象がなくて目だけがあれば意味がありません。また見える対象も目がないならば何の価値もありません。全部連体的関係性を有しているためです。そういう存在を有機体といいます。

인체를 보면 60 조 개에 달하는 세포가 있지만 그 세포가 전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핀으로 찌르면 그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전부 연체적 관계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확대해 보면 천주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 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개체의 세포조직과 같다면, 그 하나의 세포조직이 고통을 당하면 전신의 고통이 되듯이 지구상의 한 사람이 잘못되어 고통을 당하면 천주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중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전체목적인 공적인 목적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翻訳】

人体を見れば 60 兆個に達する細胞がありますが、その細胞が全部有機的関係を有しています。それで指一つをピンで刺せばその指だけが痛いのではなく全身で苦痛を感じます。全部、連体的関係である有機体なのでそうなるのです。

さらに拡大してみれば宇宙もそのような立場です。それで人間一人の行動により全体と一緒に動きます。地球上の人類が個体の細胞組織と同じならば、その一つの細胞組織が苦痛にあえば全身の苦痛になるように、地球上の一人が誤って苦痛にあえば宇宙が苦痛にあうのです。そのような世界が墮落しなかった本来の世界です。すべての存在は二重目的を有していますが、必ず全体目的である公的である目的をさらに大切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간 생활의 제 1 원칙은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타락으로 생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적인 생활입니다.

공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공금을 주고 관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벌어서 돈을 모았다면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금은 자기가 벌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 쉽습니다.

재벌 2 세들은 대개 자기 부모가 어렵게 증식해 놓은 재산을 방탕하게 함부로 씁니다. 자기가 직접 돈을 버는 어려움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방탕하고 잘못되면 가는 길이 비뚤어집니다. 그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을 상속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翻訳】

人間生活の第 1 原則は為に生きて愛するということだといいました。神様を愛して、人間を愛して万物を愛して、墮落から生じた怨讐までも愛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公的である生活です。

公的である生活をする人ができない人は誤りやすいのです。公金を与えて管理するのを見れば、その人が分かります。自分が苦勞して儲けてお金を集めたとすれば、その金をむやみに使いません。ところが公金は自分が儲けたのではなかったためにむやみに使いやすいのです。

財閥 2 世はたいいてい自分の父母が苦勞して増殖しておいた財産を放蕩にむやみに使います。自分が直接お金を儲ける困難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です。父母が集めたお金をむやみに使ってははいけません。放蕩で誤れば行く道がゆがみます。そのために父母は子供に物質的なことを相続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子供が正しく生きられるように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4 대심정권과 3 대왕권 (四大心情圈と三大王権)

4 대심정권과 3 대왕권은 본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심정의 속성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정은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 안에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이고 인격의 핵입니다.

심정의 세계는 가장 높은 산꼭대기이든 가장 낮은 골짜기이든 간에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심정의 세계는 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돈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심정과 심정을 뿌리로 하는 참사랑만이 그 세계를 직단거리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翻訳】

4 大心情圏と 3 大王権は本来は神様の中にある心情の属性です。一言で表現すれば心情は本質的属性です。その中には子女の心情、兄弟の心情、夫婦の心情、父母の心情が入っています。心情は真の愛の根であり人格の核です。

心情の世界は最も高い山頂でも最も低い谷でも直短距離を通じます。心情の世界は知識が通じません。権力やお金でも思いのままにはできません。ただ心情と心情を根とする真の愛だけが、その世界を直短距離で行き来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은 것인데 그 심정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그 심정이 통하는 자리가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아담은 절대성의 본체되시는 아버지를 닮은 실체의 생식기, 볼록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해와는 어머니 안에 있는 절대성 난자를 지닌 생식기, 오목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요소가 있습니다. 양성이란 말은 양적인 생식기를 뜻하고, 음성은 음적인 생식기를 뜻합니다.

【翻訳】

神様の心情が対象を通じて喜びたいことなのでその心情は直短距離を通じます。その心情が通じる位置が子女の位置なのです。それで神様は御自身の子女としてアダムとエバを創造しました。アダムとエバが神様の子女の位置に立ったのです。

アダムは絶対性の本体であられるお父様に似た実体の生殖器、ボルログを持って生まれており、エバはお母さん中にある絶対性の卵子を持った生殖器、オモギを持って生まれました。神様の中にその要素があります。陽性という話は陽的な生殖器を意味しており、陰性は陰的な生殖器を意味します。

하나님은 직단거리를 통해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무형의 본양성이 아담이라는 실체로 나타나고, 본음성이 해와를 통해 실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양성이 직단으로 통할 수 있는 곳은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음성이 직단으로 통할 수 있는 곳은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해와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각각 본양성 또는 본음성이 통할 수 있는 직단거리에서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각자는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翻訳】

神様は直短距離を通じてアダムとエバを創造しました。無形の本陽性がアダムという実体として現れ、本陰性がエバを通じて実体として現れたのです。

神様の中にある陽性が直短に通じることができる所は一点しかありません。それがアダムです。また、神様の中にある陰性が直短に通じることができる所は一点しかありません。それがエバです。

アダムとエバはそれぞれ本陽性または、本陰性が通じることができる直短距離にあります。各自では繁殖が不可能です。各自は一点に過ぎないためです。

공간성이 없기 때문에 횡적인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이 하나되어 횡적인 세계를 창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실체를 지니고 완성한 다음 실체를 지니고 사랑해서 아들딸을 낳아야만 횡적으로 번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완성한 남성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와를 지어놓고 완성한 여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종적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들이 종적인 관계만 가지고 한꺼번에 완성하지 못합니다. 횡적인 번식을 통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翻訳】

空間性がないので横的な範囲がありません。それでアダムとエバの二人が一つになって横的な世界を創造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二人が実体を持って完成した後、実体を持って愛して、息子を産んでこそ横的な繁殖が広がるのです。

神様はアダムを作っておいて完成した男性になることを待ちました。そしてエバを作っておいて完成した女性になることを希望して待ちました。アダムとエバが縦的に創造を受けましたが、彼らが縦的な関係だけを持って一度に完成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横的な繁殖を通じて発展するのです。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해와가 완성한 다음 부부를 이루어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녀의 심정권이 설정되고, 결혼하기 전 당사자끼리는 형제자매의 심정권이 설정됩니다. 또 그들이 부부를 이루면 부부의 심정권이 형성되고,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심정권이 설정됩니다. 그것이 4대심정권입니다. 4대심정권은 번식과 성장과 발전의 기반입니다. 4대심정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완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장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도 4대심정권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중심된 핵의 자리에서 종적으로 성장한 참아버지이지만, 종적인 아버지도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거쳐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翻訳】

神様の子女であるアダムとエバが完成した後に夫婦を成して子女を産んだ時、神様に対しては子女の心情圏が設定され、結婚する前、当事者間で兄弟姉妹の心情圏が設定されます。また、彼らが夫婦を成し遂げれば夫婦の心情圏が形成されて、その子女に対しては父母の心情圏が設定されます。それが4大心情圏です。4大心情圏は繁殖と成長と発展の基盤です。

4大心情圏は一日で成り立つものではありません。神様も初めから完成した方ではありません。神様も成長の段階を経ます。神様も4大心情圏を通じて成長します。神様は中心になった核の位置で縦的に成長した真のお父様ですが、縦的であるお父様も子女の心情、兄弟の心情、夫婦の心情、父母の心情を経て成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하나님은 온전한 자리에 계셔서 당신이 생각한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도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심에 핵을 가진 자리에서 종적으로 성장하여 아버지가 되고 참된 부모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본성상, 본형상을 지닌 동시에 그 속성으로 본양성과 본음성이라는 참아버지의 절대성 생식기와 참어머니의 절대성 생식기를 지니신 본체가 바로 참부모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을 전개한 실체가 있어야 참사랑이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하나님이 그 실체의 자리에 심은 것이 아담, 해와입니다. 아담, 해와는 자녀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翻訳】

神様は完全な位置にいらっしゃり、御自身が考えた通りに創造が成り立ってきたと考えてきましたが、神様にも成長過程がありました。中心に核を持つ位置で縦的に成長してお父様になり真の父母の位置に出て行きました。

本性相、本形状を持つと同時にその属性である本陽性と本陰性という真のお父様の絶対性の生殖器と真のお母様の絶対性の生殖器を持たれた本体が、まさに真の父母である神様なのです。その姿を展開した実体があってこそ真の愛が直短距離を通じます。神様がその実体の位置に植えたのがアダム、エバです。アダム、エバは子女の位置に立てられました。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면 자녀의 심정권에서 참된 자녀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커가면서 형제애를 느낍니다. 즉 형제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분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 있단 아담, 해와의 자녀의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형제의 심

정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 부부의 심정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귀한 목적이고 삶의 가치입니다. 창조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던 심정의 대도를 아담과 해와도 걸어가야 합니다. 인간이 심정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닮은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기간에 아담과 해와가 해야 할 책임분담입니다.

【翻訳】

神様の子女として完成すれば子女の心情圏で真の子女の愛が出てきます。そして彼らが高まって兄弟愛を感じます。すなわち兄弟の心情を持つのです。アダムとエバは成長しながら神様が御自身を作られた方です。お父様という事実を知って神様を尊敬して愛するようになります。その本質が神様の心情の中にあるというアダム、エバの子女の心情なのです。彼らは引き続き兄弟の心情を感じることであり、その次に成長すれば夫婦の心情も感じることであります。

人間が神様に似ることが神様の創造理想であり、それが人間にとって最も大事な目的であり人生の価値です。創造の主人として神様が被造世界を創造された心情の大道をアダムとエバも歩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人間が心情の本体である神様を心情的に似た実体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それが成長期間におえるアダムとエバ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任分担なのです。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심정적인 분야의 중심이 되고,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부모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자녀의 과정, 형제의 과정을 거칠 때 의심되고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 가르쳐줍니다.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원리를 세워 창조했습니다. 아담, 해와는 인간책임분담에 의해 성장기간 동안 원리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간접주관권입니다. 간접주관권을 거쳐 4대심정권을 갖추고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을 갖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게 생식기의 주인이 었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翻訳】

子女の心には父母が中心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父母が心情的な分野の中心となって、子女も父母の教えを見習って父母のような道を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子女の過程、兄弟の過程を経る時、疑われて分からない内容があってもそれは誰も教えられません。神様も教えられません。

原理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は原理を立てて創造しました。アダム、エバは人間の責任分担によって成長期間の間、原理の道を自ら歩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間接主管圏です。間接主管圏を経て4大心情圏を備えて神様の神性と人格を備えた位置に進んだ時、はじめて神様はアダム、エバに生殖器の主人が互いに入れ替えられ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らせます。

‘너희가 지닌 생식기는 상대가 주인인데, 종적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결혼이 벌어집니다. 그 결혼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입니다. 그 첫날 밤 첫사랑은 아담, 해와의 아들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의 본성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가 삼라만상, 만물입니다.

【翻訳】

‘お前たちが持っている生殖器は相手が主人なので、縦的な主人は神様であるお父様だ。’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するのです。その時はじめて結婚が広がります。その結婚がまさに神様の結婚なのです。その初夜の初愛はアダム、エバの息子、娘であり神様の息子、娘になることなのです。

神様がくださった欲望の本性は誰が教えるのでもなく、時になれば自動的に感じ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その教材が森羅万象、万物です。

아담과 해와가 어릴 때는 성에 대해 몰랐습니다. 봄이 되어 토끼들이 나와서 암놈과 수놈이

교미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겨울에 사슴들이 뛰어다니다가 봄이 되면 암놈과 수놈이 사랑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사춘기가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고 몸속에 전율이 흐르는 것은 느낍니다.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토끼나 사슴들이 사랑을 하더니 암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봅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미로부터 새끼가 나옵니다. 어미는 그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혀로 핏을 주고 음식을 갖다먹이고 적이 나타나면 생명을 걸고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翻訳】

アダムとエバが幼い時は性に対して分からなかったのです。春になってウサギが出てきて雄と雌が交尾をしても関心がありません。冬に鹿が飛び回って春になれば雄と雌が愛します。幼い時はそんなことに関心がなかったのですが、思春期が近づけば、われ知らず好奇心がでてきて、体の中に戦慄が走るのを感じます。教育は受けなかったけれど、われ知らず感じがくるといことです。

アダムとエバはウサギや鹿が愛すると雌の腹が少しずつ出てくるのを見ます。少したつと母から子供が出てきます。母はその子供のために全てのものを犠牲にします。舌でなめて食べ物を持って行って食べさせ、敵が現れれば命をかけて子供たちを保護しようとするのを見ることになります。

아담과 해와는 그것을 보면서 암놈과 수놈이 사랑하면 새끼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기른다는 사실을 알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한 심정을 느끼고, 부모의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만물은 사랑의 교과서요. 박물관입니다. 오늘날처럼 학, 박사 과 정을 통해서 아담, 해와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찾아서 이루고, 스스로 절대성의 가치를 찾아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翻訳】

アダムとエバはそれを見て雄と雌が愛すれば子を持つという事実を知り、母が子に乳を飲ませて育てるという事実を知って習います。それで夫婦に対する心情を感じて、父母の心情を感じるのです。

自然万物は愛の教科書です。博物館です。今日のように学、博士と情を通じてアダム・エバが完成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権力で完成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お金が多くて完成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自然万物の中に神様の心情世界を探して成し遂げて、自ら絶対性の価値を探して完成するのです。

남자에게 천주를 다 주는 것보다도 큰 최고의 축복은 여자를 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천주는 다주는 것보다도 남자를 주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여자인 해와를 주고, 해와에게는 남자인 아담을 주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축복은 얼굴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진정한 가치는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축복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절대성 생식기가 그 실체로 완성된 아담과 해와의 체를 쓰게 됩니다. 무형의 아버지의 절대성 생식기가 아담의 생식기와 일체가 되고, 어머니의 절대성 생식기가 해와의 생식기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翻訳】

男性に天宙を皆あげることもより大きい最高の祝福は女性を与えることです。女性には天宙をみな与えることもより男性を与えることが祝福の中の祝福です。なのでアダムには女性であるエバを与え、エバには男性であるアダムを与えることが祝福の中の祝福です。

祝福は顔を見て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祝福の真の価値は生殖器の主人を許諾するところにあります。祝福を通じて完全な神様の絶対性の生殖器が、その実体として完成されたアダムとエバの体

を使うことになります。無形のお父様の絶対性の生殖器がアダムの生殖器と一体になり、お母様の絶対性の生殖器がエバの生殖器と一体になるのです。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형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횡적인 주인을 허락하고 '내가 너희 몸속에 들어가 종적인 주인이 되겠다.' 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4대 심정권 완성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동시에 자기의 자녀도 완성하고, 자녀가 완성하면 부모가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의 완성이로 인해 하나님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속에 있는 4대심정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翻訳】

そうなった時、初めて無形の神様がアダムとエバに横的な主人を許諾して'私がお前たちのからだの中に入って縦的な主人になる。'というのです。それを決めることがまさに4大心情圏の完成です。

アダムとエバが完成すれば、それは同時に自らの子女も完成し、子女が完成すれば父母が完成することになります。なのでアダムとエバの完成により、神様も完成するのです。その時アダムとエバは神様の中にある4大心情圏を完成することになります。

4대심정권은 원래 하나님의 심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의 4대심정권이 실체를 통해서 느끼고 체휼하고 완성하게 되는데, 실체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속에 있는 4대심정권을 그냥 심정이라고 합니다. 심정의 표현이 창조입니다. 그 창조의 결과물이 아버지 속에 있는 심정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의 4대심정권을 완성한 실체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에게는 실체가 되지만 자기의 실체가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대상인 해와밖에 없고, 해와에게는 아담밖에 없습니다. 대상만 가지고는 4대심정권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翻訳】

4大心情圏は本来、神様の心情の中にあるものです。神様の中の4大心情圏が実体を通じて感じられ、体恤して完成することになりますが、実体がない時には神様の中にある4大心情圏をそのまま心情といいます。心情の表現が創造です。その創造の結果がお父様の中にある心情圏を完成するのです。

アダムとエバが完成すれば神様の4大心情圏を完成した実体になります。ところでアダムとエバは神様にとっては実体になりますが、自らの実体はありません。アダムには対象であるエバしかなく、エバにはアダムしかありません。対象だけ持っても4大心情圏を成し遂げ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아담과 해와가 성장기를 거쳐서 4대심정권을 완성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을 완성하는 것처럼 아담과 해와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부부를 이루어 아들딸을 낳아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아들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부모의 심정을 완성시켜 드릴 수 있지만, 자기들의 부모의 심정은 완성하지 못합니다. 자체 속에 있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요소가 아들딸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의 축복결혼을 통해서 아들딸을 낳아야 합니다.

【翻訳】

アダムとエバが成長期を経て、4大心情圏を完成した子女になる時、神様が父母の心情を完成するように、アダムとエバもそのような過程が必要です。それでアダムとエバも夫婦を成し遂げて、息子、娘を産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アダムとエバは息子、娘がいなくても神様には父母の心情を完成させて差し上げることができま

すが、自分たちの父母の心情は完成できません。自体の中にある父母の心情という要素が息子、娘がいなければ現れないのです。そのために、アダムとエバも神様の祝福結婚を通じて息子、娘を産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모신 실체로 완성하면 하나님이 완성하는 동시에 아담, 해와도 책임 분담권에서 해방됩니다. 거기에서 참부모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부모이시지만 마음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 또는 참아버지의 하나님, 참어머니의 하나님이신 무형의 본체이십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마음의 하나님과 몸의 하나님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아담, 해와의 마음과 몸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완성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완성하고 해방시킨다는 것은 곧 마음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을 통일시켜 참부모로 만들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翻訳】

アダムとエバが神様に侍る実体として完成すれば、神様が完成すると同時にアダム、エバも責任分担圏から解放されるのです。そこで真の父母の位置が決定されるのです。

神様は真の父母ですが、心の神様、体の神様、または、真のお父様の神様、真のお母様の神様である無形の本体でいらっしゃいます。アダム、エバの墮落で、心の神様と体の神様が分かれました。それは墮落により神様の聖殿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アダム、エバの心と体が分かれたためです。完成したアダム、エバが神様を完成して解放してさしあげるということは、つまり心の神様、体の神様を統一させて真の父母として作って差し上げた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하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 무형의 참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참부모는 실체적으로 모시는 아들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실체의 참부모가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아담, 해와는 동시에 책임분담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영원히 한분밖에 없습니다. 참부모는 최초로 책임분담권에서 해방되어 완성한 분이 얻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것은 아담, 해와가 완성하고 얻어야 할 이름입니다.

【翻訳】

神様は万王の王の神様、無形の真の父母です。ところでその真の父母には実体的に迎える息子、娘が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アダムとエバです。アダムとエバが完成すれば実体の真の父母になります。それによって神様とアダム、エバは同時に責任分担圏から解放されるのです。

真の父母は永遠に一人しかいません。真の父母は最初に責任分担圏から解放されて完成した方が得る光栄な称号なのです。それはアダム、エバが完成して得なければならない名前です。

아담, 해와는 완성하면 참부모가 되고, 실체의 하나님이 되고, 인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참부모의 칭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혈통을 바꾸는 분이 참부모의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역사상 어느 누구도 혈통을 바꿀 수 없었지만, 참부모만은 혈통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분은 참부모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부모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만민에게 나누어주고 싶으신 것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혈통을 번식할 수 있는 분입니다.

【翻訳】

アダム、エバは完成すれば真の父母になり、実体の神様となって、人間の先祖になります。しかしアダム、エバは墮落によってサタンの血統を受け継いだので、真の父母の称号を得られません。その血統を変える方が真の父母の呼称を受けることになるのです。

人類歴史上どこの誰も血統を変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すが、真の父母だけは血統を変える

ことができます。神様を解放できる方は真の父母しかいません。それが真の父母の特権です。その特権を万民に分けてあげたいのが真の父母です。真の父母は神様を完成させて、神様の御旨を完成させて、無形におられた神様の実体となって神様の血統を繁殖できる方です。

4 대심정권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으로 3 대왕권이 이루어집니다. 4 대심정권을 혈통적 직계로 보면, 하나님은 조부모이면서 과거에 해당하고, 존재세계 전체를 대표합니다. 완성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는 부모이면서 현재에 해당하고 인류를 대표합니다. 또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이룬 아담, 해와가 자녀를 번식하면 그 자녀는 미래를 대표하는 미래의 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혈통으로 이어지는 3 대왕권입니다. 3 대왕권은 모든 가정을 대표하고 존재세계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왕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3 대왕권을 중심으로 황족권이 이루어집니다. 4 대심정권을 완성한 사람은 황족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翻訳】

4 大心情圈を完成すれば、神様の血統を中心として 3 大王権が成り立ちます。4 大心情圈を血統的直系から見れば、神様は祖父母であり過去に該当し、存在世界全体を代表します。

完成した男性と女性で成り立った夫婦は、父母であり現在に該当し、人類を代表します。また、神様と父子関係を成し遂げたアダム、エバが子女を繁殖すれば、その子女は未来を代表する未来の王です。それが神様を中心とする血統につながる 3 大王権です。

3 大王権はすべての家庭を代表し、存在世界全体を代表します。それで王権だと表現したのです。3 大王権を中心として皇族圏が成り立ちます。4 大心情圈を完成した人は皇族圏の一員になるのです。